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 7월에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 30명으로 구성된 151명의 위원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발기하여 약 5년여에 걸쳐 완성한 것인데, 그 교리적 이장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문 33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앙고백은 장로교의 기본 교리로 채택되었으며, 장로교회의 직분자들의 성경적 교리로 받아들여도록 요구되고 있다.

제1장 성경

1.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보여 주는 바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인류는 도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족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과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그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심이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의 필요성은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 교회에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2.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신구약의 모든 서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구약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오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3. 일반적으로 가경이라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작품일 뿐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4. 우리가 성경을 믿어 복종함이 당연한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그 권위의 성립은 어떠한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런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우리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다.

5.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하여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도 된다. 그 논증들은 곧 성경에 있는 진리의 천적인 성격, 교훈의 능력성, 문제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이다. 성경의 이런 속성들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케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 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를 말한다.

6.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받는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회의 예배나 형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 인류의 일반 행사나 집회와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이성의 정당한 지시와 기독교 신자의 양식에 의하여 처리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일반적 원칙들을 늘 살피서 지켜야 한다.

7.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 만하다.

8.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책들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 최후적 결론을 내린다.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을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정의하는 심리로 성경을 읽으며 상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합당하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9.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성구로써 밝혀야 한다.

10.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한다.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2-1강)

1.하나님은 오직 한분이신데,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 존재와 속성에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며,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다. 그는 변치 아니하시며, 무궁하시고, 영원하시어,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 그는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어서 그의 변치 않는 의로운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그는 사랑이 지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부하셔서 사람들의 불의와 범행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갚아 주신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그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므로 죄를 회개치 않고 스스로 고집하여 죄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결단코 면회(용서)하지 않으신다.

2.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이 그 안에 있고, 또 그에게서 나오며, 그는 홀로 그 자신 안에서 스스로 충족하시다. 따라서 그의 지으신 피조물들에게서 유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의 영광을 그것들과 관련시키어서(그것들 안에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상대로, 그것들 위에) 나타내신다.

그 분만이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는 그것들을 다스리시되,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시며, 그것들을 위하신다.

그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가리움이 없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시다. 그에게는 우연이란 것도 없고 불확실한 것도 전혀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이나 모든 행사나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는 천사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든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그의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을 받으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본질(The Essential Nature of God)

1.하나님에 대한 지식

- 1)이해할 수 없으나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 2)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다.

2.선천적인 지식(Innate Knowledge)과 후천적인 지식(Acquired Knowledge)

3.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이렇다고 정의(define)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특별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1)하나님은 영이시다(God is a pure Spirit)
- 2)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God is a Personal)
- 3)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시다(God is Infinitely Perfect) :
- 4)하나님은 한 분이시다(God and His Perfections are One)

하나님의 속성(The Attributes of God)

1.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나?

- *비공유속성 :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이다.
- *공유속성 :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피조물과 관계)

2. 비공유 속성(Incommunicable Attributes) :

- 1) 자존성(Independence or self-existence)
- 2) 불변성(Immutability)
- 3) 무한성(infinity/ no limitation)
- 4) 단순성(simplicity)

3. 공유 속성: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

- 1) 지식
- 2) 지혜
- 3) 선함(goodness) :
- 4) 사랑
 - * 은혜(grace): 죄를 용서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 * 자비(mercy)와 긍휼(compassion) :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함에서 구하는 것이다.
 - * 오래 참으심과 인내(longsuffering): 경고를 받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음.

5) 거룩하심 :

6) 의(義)

7) 진실성(veracity)

8) 주권(Sovereignty) : 자기 결정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의지

- * 작정적 의지 :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일어난다.
- * 교훈적 의지 : 삶의 규범과 의무들이다. 종종 불순종된다.
- * 주권적 뜻(Sovereignty will) :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 * 드러난 뜻: 성경을 통해서(복음과 율법으로) 계시된 것이다.
- * 감추인 뜻: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감추어져서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 죄를 범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50:20).

*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 준비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행2:23).

* 주권적 능력(Sovereignty power) :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을 전능이라 한다.

*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거짓말과 죄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제2장 삼위일체(The Trinity) (2-2강)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시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아니했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1.삼위일체론의 역사

*종교개혁 이전

- 1)터툴리안 :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성자를 성부에 종속시켰다.
 - 2)오리겐 :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고, 성령은 성자에 종속된다. 아리우스주의자의 디딤돌을 놓았다.
 - 3)아리우스주의자들 : 성자를 성부의 제1피조물로 묘사함으로써,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질성이 부정된다. 신성의 세 위격의 외형을 유지하였으나, 신성은 단일신론에 의해 희생되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성자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다.
 - 4)역동론적 단일신론 : 예수 안에서는 인간만을, 성령 안에서는 신적 영향력만 본다.
 - 5)양태론적 단일신론 : 성부, 성자, 성령을 신적 본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난 현현의 세 모양으로 간주한다.
 - 6)삼신론 : 하나님의 유일성을 간과한다.
 - 7)교회는 4세기에 삼위일체론을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
- *니케아 공의회(주후 25년)는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임을 선언하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주후 381년)는 성령의 신성을 주장한다.
*삼위의 상관관계는, 성자는 성부에 의해 발생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초기의 몇 가지 잘못된 것이 반복되었다.

2.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인격성

3.삼위일체론에 대한 성경적 증거

- *창1:26절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르시게 하자 하시고.
*창11:7절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18:2절이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다니엘3:25절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63:10절이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신약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본질이 완연하게 드러난 후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도, 동시에 그들 앞에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계신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성령이 오신 것을 목격하였다.

*마3:16절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28:19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후13:13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4.삼위일체에 관한 진술

1)하나님은 존재나 본질적 본성에서 하나이다.

2)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

3)하나님의 나누어지지 않는 본질은 삼위 각자에 동등하게 속한다. 종속이 없고, 위격의 위엄에서 차등이 없다.

4)삼위의 실존과 활동의 순서는 첫째는 성부, 둘째는 성자, 그리고 셋째는 성령이다.

*성부는 다른 어떤 위격 안에서 태어나거나 발원하지 않는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발생과 발출은 신적 존재 안에서 일어나며, 위격적 실존의 방식에 관한 어떤 종속을 의미하지만, 신적 본체의 소유에 관계되는 한 아무런 종속도 의미하지 않는다.

5)발생은 성부만의 행위이며, 아들 됨은 독점적으로 성자에게 속하며, 발출은 오직 성령에게만 돌려진다.

*하나님의 사역의 경륜적 순서에서 창조는 1차적으로 성부에게, 구원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돌려진다.

6)삼위일체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고백이다.

C.삼위의 각론 (2-3강)

1.성부 혹은 삼위일체의 제1위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다.

*구약 백성의 계약 관계

*영적 자녀의 아버지

*독특성 : 성부는 나지 아니하시고, 나오시지 않는다.

2.성자 혹은 삼위일체의 제2위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1)제2위에 적용된 성자라는 호칭 :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 삼위의 신성의 관념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단지 영예로운 칭호로만 간주하는 것 반대.

*성자는 성육신 이전의 입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무적 혹은 메시아적인 의미에서 :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2)성자의 위격적 실존 : 양태론자들에 대항하여 주장되어야 한다.

3)성자의 영원한 발생 : 성자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그것은 성자의 신적 본질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위격적 실존의 발생이다

*그것은 반드시 영적이며 신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발생이다 : 이 발생을 육체적 혹은 생물적인 방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분할이나 변화의 관념을 배제하는 영적이고 신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요약 : 성자의 발생은 삼위일체의 제1 위의 신적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제 2위의 실존의 근거가 되며, 그 제2위로 하여금 어떤 분할이나 분리 또는 변화가 없이 신적 본질을 전부 소유하게 하시는 영원하며 필연적인 행위이다.

4)성자의 신성 : 성자의 신성을 명백히 주장하고, 신적인 호칭을 그에게 적용하고, 영원한 존재, 편재, 전지, 전능, 불변성 등 신적 속성들을 그에게 돌린다. 이런 속성은 성부에게 속하는 것이다. 성자가 창조, 섭리, 사죄, 부활과 심판, 만물의 마지막 붕괴와 갱신 등의 신적인 사역들을 행하신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적인 영광을 성자에게 돌린다.

5)경륜적 삼위일체에서의 성자의 위치 : 만물이 성부에게서 났다면, 그것들은 성자로 말미암는다. 만약에 성부가 만물의 절대적 원인으로 나타난다면, 성자는 중보적 원인으로 분명히 나타난다.

*구속의 사역에도 적용된다.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자기 백성을 위해 보증이 되시며, 성부의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죽음 속에서 실행하셨다.

3.성령 혹은 삼위일체의 제3위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1)삼위일체의 제3위에 적용된 호칭 :

2)성령의 인격성 :

*지식, 의지, 감정과 같은 인격의 특징들이 성령에게 돌려진다. 성령은 인격성에 적합한 행동들을 실행하신다. 성령은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노력하시고, 창조하시고, 간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등의 일을 하신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일 수 없으며, 인격이어야만 한다.

*성령은 자신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바, 다른 인격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으로 나타난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

3)성령과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과의 관계 : 성령이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소유한다.

*성령이 성부만으로 발출하는가, 아니면 성자에게서도 발출하는가? 589년 톨레도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라틴어 역문에 필리오케(Filioque, 성자로부터)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발생은 성부만의 사역이며, 파송은 성부와 성자 양자의 사역이다. 이는 성자에 대한 성령의 본체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생과 마찬가지로 파송에도 신적 본체 전체의 전달이 있으며, 따라서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등하다.

*요약 : 파송은 삼위일체의 제1위와 제2위가 신적 존재 안에서 성령의 인격적 실존의 근거가 되며, 제3위로 하여금 아무런 분할이나 분리 또는 변화가 없이 온전한 신적인 본질을 소유하게 하는 영원하며 필연적인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성령은 다른 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지상 사역을 행하시는 일, 즉 성자가 행하셨던 것과 같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파라클레이토스로 오셨다.

4)성령의 신성 : 신적 호칭들이 그에게 부여되고, 편재, 전지, 전능, 영원 같은 신적 속성들이 그에게 돌려지고, 창조, 섭리적 갱신, 중생,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신적 사역들이 그에게 의하여 수행되고, 신적 영광이 그에게도 역시 돌려진다.

5)신적 경륜 속에서의 성령의 사역 : 성령의 특별한 임무는 피조물의 안팎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심으로써 사물들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 자연계에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생명의 발생 존재가 성부로부터 나오고, 생각은 성자로 말미암음과 같이, 생명은 성령의 의하여 매개된다. 성령은 창조의 사역에 마지막으로 접촉하고 계신다.

*사람들의 일반적 영감과 자격 : 성령은 사람들의 직무적 과제를 위하여, 즉 과학과 예술 등의 일을 위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자격을 부여하신다.

*구원의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은 훨씬 중요하다.

*중보적인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자격을 부여하심 :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한없이 받으셨다.

*성경의 영감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

*교회의 형성과 확장 : 성령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을 중생과 성화에 의하여 형성하시고 성장시키시며, 새 생명의 원리로서 교회 안에 계신다.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심 :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또한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구세주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시며, 교회를 오류로부터 지키시며, 또한 교회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도록 하신다.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1.하나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 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사람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2.하나님께서서는 미래에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가 그 예지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작정이란 무엇인가?

*작정의 성격

*작정 교리를 반대하는 이유

3.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4.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게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효는 확정되어 가감할 수 없다.

5.인류 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가 그의 영원불변하시는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며, 단순히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송할 뿐이다.

*예정과 일반 작정의 관계 *이중예정(선택과 유기) *선택이란 무엇인가?

6.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심과 동시에 그 성취 방법도 예정하셨으니, 그것은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본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바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신 바 되고, 성화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적 생활이 보호를 받는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일이 없다.

7.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어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들(여기서는 인간들)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유기란 무엇인가?

8.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정의 목적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 받은 사실과 영생 얻은 줄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외

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진실히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 교리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

제4장 창조

1.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옛세 동안에 세상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엮던 가운데서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성 있는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이 부여되었고,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 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1.창조

1)하나님의 작정 다음 단계로 창조를 생각한다.

2)창조는 모든 계시의 시작과 기초이고, 모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기초이다.

3)창조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의 사역이다.

4)창조론에 관한 성경적 근거

5)요약 : 창조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태초에 모든 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인 우주를,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신과 구별되면서도 언제나 자신에게 늘 의존하는 실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2.창조의 목적

1)사람의 행복을 위해 :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2)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 기계적이나 억지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셨다. 피조물들의 행복과 구원, 감사와 찬송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3.창조론의 역사

1)헬라 철학은 이원론과 유출론으로 설명하려 하나, 기독교는 창조론을 말한다.

2)18세기에 범신론과 유물론의 영향으로 과학은 창조를 진화나 발전으로 설명한다.

3)신학자들은 창조론은 과학이나 철학과 조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4.창조론의 반대

1)물질은 영원하다 : 우연이나 보다 고차원적으로 강권하는 힘에 의해 생긴다.

*비평 : 영원한 것이 둘일 수 없다. 영원과 다른 영원이 함께 할 수 없다.

2)유출설 : 하나님과 세상은 같다. 세상은 신성의 필연적인 유출로 생긴 것이다.

*비평 : 하나님의 자기결정력과 인격과 의지를 빼앗고, 인간의 자유의지나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을 훼손한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책임져야 한다.

3)진화론 :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다.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진화론의 인생관과 세계관의 문제

5.영적 세계의 창조

1)천사의 본성

*피조 된 존재

*영적이고 무형적인 존재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불멸하는 존재

*일부는 선하고, 일부는 악하다.

2)천사의 등급

*그룹 :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계시하며, 땅으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한다.

*스랍 :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하며 명령을 수행한다.

3)천사의 이름

*가브리엘 :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해석한다.

*미가엘 : 악한 영이나 원수들과 싸우는 전사이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 천사의 서열이나 위계를 지칭한다.

4)천사들의 하는 일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한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구원받을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전달한다.

*원수에게 심판을 행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전달한다.

*악한 천사들 :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한다.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자리를 이탈하였다. 사단은 그들의 우두머리이다. 택한 자라도 타락시키려 하고, 죄인의 길을 가도록 자극한다.

6.물질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1)날(Day) : 진화론자는 긴 시간이라고 하나, 24시간으로 본다.

*아침과 저녁

*제7일 안식일

2)6일 동안의 창조 순서 :

빛과 어둠(첫째날) 발광채(넷째날)

하늘과 땅의 분리(둘째날) 하늘과 바다의 생물(다섯째날)

바다와 땅의 분리(셋째날) 육지의 생물과 사람(여섯째날)

3)창조의 클라이막스는 6일째 사람이다.

4)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다(좁은 의미에서)

*심승과 구별되는 인간의 모든 것(넓은 의미에서)

5)선악과를 먹지 말라 : 인간의 자율주의 금지

제5장 섭리

1.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들을 크건 작건 간에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하여 유지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그가 이처럼 섭리하시되, 그의 오류 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동요 없는 그의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다. 그것은 결국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청조와 섭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 1) 우연(에피쿠로스 학파)
- 2) 운명(스토아 학파)

*섭리의 세가지 요소

1) 신적 보존 :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활동이다. 세상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2) 신적 발생(협력) : 하나님은 피조물과 협력하여 그것이 의도한대로 발생하게 한다. 하나님이 제1의 원인이고, 인간의 지혜나 자연의 법칙 등이 제2의 원인이다. 인간과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 협력한다.

3) 신적 통치 :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서 그 존재 목적을 이룬다. 우주적이고, 미세한 것, 우연처럼 보이는 것까지 다 통치한다. 선과 악을 통치한다.

2.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 진다. 그러나 그것들의 되어가는 방편은 제2원인(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의 성격대로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또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보통 섭리에서 간접적인 방편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방편 없이 역사하시거나 방편을 초월하여,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방편에 역행하시기도 하신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나타난다. 아담의 타락 또는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할 하에 들어 있다.

1)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허락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신다.

2) 그리고 다른 한편 여러 방법으로 명하시며, 다스리시되, 그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신다.

3) 그러나 죄는 피조물들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므로 그 자신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거니와 죄를 승인하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5.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친 자녀들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와 또는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1) 전날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2)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과, 3)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며, 4)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5)그들로 하여금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려는 것이며, 6)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6.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날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완악하게 하신다.

- 1)그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 2)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들도 빼앗으시며
- 3)그들의 부패성이 찾고 있는 범죄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 4)그와 동시에 그들을 그들의 정욕과 이 세상 유혹과 사단의 능력에 내어 주시기도 하시며
- 5)하나님이 사람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쓰시는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박케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7.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거니와 특수한 방법으로는 그가 교회를 돌보시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섭리에 대한 오해

- 1)이신론의 오해
- 2)범신론적 오해

*신적 협력과 죄

- 1)신적 허용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 2)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죄악된 행동을 억제하신다.
- 3)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누르신다.

*비상섭리

- 1)일반섭리와 특별섭리 : 특별섭리는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다
- 2)이적이란 제2의 원인 없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3)이적을 부인하는 사람들
- 3)이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6장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

1.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다(율법에 대한 반대).
- *죄와 악은 구분해야 한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이 아니다.
-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 *죄는 천사의 세계에서 시작되었다.
- *뱀은 단지 사탄의 도구였다.

- *인류 안의 죄의 기원 : 아담이 낙원에서 범죄함으로 죄가 시작되었다.
- *형식적 특성 : 선악과 금지는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목적이다.
- *본질적 특성 :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자율주의.
- *지정의 타락 : 죄가 자리하는 곳은 지(불신과 교만), 정(금지된 선악과), 의(하나님과 같이 되려 함)이다.

2.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 *원죄의 결과 :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지식, 의, 거룩)
- *전적 부패 : 전적이라 함은 정도가 아니라 범위이다.

3.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이다.

*원죄의 두 가지 요소

- 1)죄책 : 죄의 책임과 형벌적 책임이다.
- 2)죄책의 전가(개혁주의 대표의 원리) : 행위 언약의 대표로서 아담의 죄에 대한 죄책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다.

4.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배격하며 무능해졌고, 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것이 원래의 부패성(원죄)이다. 여기서 본인들의 모든 자범죄들이 나온다.

- *원죄의 오염 : 전적인 부패나 전적 무능력으로 간주된다.
- *전적 부패 : 부패가 인간의 모든 부분 곧, 영혼과 육체에 확대되었다. 영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로마서1-3장 /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 *전적 무능력 : 자연적인 선, 시민법적인 선, 외적인 종교적 선을 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죄와 자아를 선호하는 태도를 바꿀 수 없다.

*펠라기우스주의자 :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 죄로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알미니우스주의자 :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통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현대주의자 :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범죄 : 원죄에서 유래하는 모든 의식적인 사유와 의지를 말한다. 원죄는 하나이고, 자범죄는 다양하다. 욕망이나 내적 자질을 다 포함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성령을 거스리는 죄) : 증거와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의 증거를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질서와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일로 돌리는 행위이다.

*모든 회개를 거부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고, 영혼의 복락과 미래에 절대적으로 무관심하다.

5.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들에게 남아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부패가 금생의 신자들에게 남아 있다.

*점진적으로 제거된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두 개의 인물로 생각해서 안 된다.

*오해(1) : 완전주의(모든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해(2) : 무율법주의(죄를 인정하나 옛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패성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

6.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또 위반이다. 그 본연의 결과로 그 범행자가 죄책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결박되어 죽을 수 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또는 영원히 비참해짐을 피할 수 없다.

*죄의 형벌 : 형벌이란 율법을 범함으로 침범당하는 공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 수여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가하는 고통이나 손실이다. 현세에서 받는 재난이나, 미래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다.

*자연적인 형벌

*적극적인 형벌

*죄에 대한 실제적 형벌 : 영적인 죽음, 삶의 고통, 육체의 고통, 영원한 죽음

제7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1.하나님(창조주)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크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성 있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순종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을 인간들의 복과 상급으로 모실 길은 전혀 없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인류를 찾아 주시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

*종교와 언약 :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은덕에 근원을 가진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타락한 죄인인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권리가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신인 교통의 길이 열린다.

2.인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및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그들의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신 것이다.

*행위 언약 : 아담을 상대로 맺으신 언약이다. 아담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3.인류는 범죄하였으므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셨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도록 하셨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 주신 것이다.

A.구속 언약

- 1)당사자는 성부(삼위 하나님을 대표)와 성자(택함 받은 사람들의 머리)
- 2)그리스도에게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 언약의 기초이다.
- 3)효력은 제한적이다. 택함 받은 자만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
- 4)성부가 성자에게 요구 : 육신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형벌을 받게 한다.
- 5)성부가 성자에게 약속 :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택한 자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B.은혜 언약

- 1)당사자 : 하나님과 죄인이다.
- 2)목적 :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 3)약속 : 축복과 칭의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
- 4)언약의 요구 :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언약을 순종함으로 그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언약을 믿고, 언약의 삶을 받아들여라.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 5)언약의 특성
 - *은혜로운 언약 : 죄인을 향한 은혜로운 언약이다.
 - *영원하다 :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 *특수하다 : 만인구원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 해당된다.
 - *조건적 :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한다(알미니안주의는 행위 언약과 같다)
 - *무조건적 :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 *언약적 :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 *누가 언약에 가입하는가 : 성인과 어린이

6)언약의 다양성(6항에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와 차이)

*원시언약(창3:15)

*노아언약 : 일반 은혜를 다루는 자연 언약이다. 은혜언약을 이루는 징검다리

*아브라함 언약 : 믿음의 언약이고, 할례로 표시된다.

*시나산 언약 : 아브라함 언약의 국가적 확대이다. 국가적 언약이다.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른 행위언약이라 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더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새언약(렘31:31) : 구약의 다른 언약과 같다. 유대주의의 특수주의를 극복한다. 보다 넘치는, 보다 영적인 언약이다. 세례와 성찬이 할례와 유월절을 대신한다.

4.이 은혜 언약은 종종 유언의 내용으로 성경에 해설되어 있다.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으로 증여된 영원한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한 내용이다.

*은혜 언약은 유언이다 :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유언으로 간주된 은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언약의 복은 유언에 의해 양도되며, 유언상의 양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집행된다.

5.이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시대에 각각 다른 형태로 실시되었다. 율법 시대에 유대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어린양, 기타 모형들과 규례들이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시대의 선민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그 때에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구약이다.

*세대주의 언약들 : 역사를 여러 세대 곧, 무죄세대, 양심세대, 인본정치세대, 약속세대, 율법세대, 은혜세대, 왕국세대로 나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들을 베푸시는 방법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신다.

*개혁주의 언약(통일성과 점진성) : 타락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바 하나의 은혜언약의 절대적 단일성을 가르친다.

6.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설교와 성례뿐이다. 이 규례들이 수효로 보아서는 적고, 그 사역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더욱 충만하고도 명확한 영적 효력을 모든 나라에 나타낸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신약의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구약 신자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를 지배했던 것과 동일하다. 세대주의자처럼 두 시대를 대조되는 것으로 파악할 근거가 없다.

*신약 시대는 보편적이다. 모든 국가들에 확장된다. 이방인도 나올 수 있다.

*신약 시대는 언약의 은혜적 성격을 더욱 강조한다.

*구약 시대보다 더 부요한 복을 가져온다.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1.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에게 씨가 되는 백성을 주셨다. 때가 이르매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함이 되었다.

<인간론과 기독교론의 관계>

- *인간론
- *기독교론

<기독교론의 역사>

1.칼케톤 회의까지

-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수하기 위해 신성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반대의 인성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 *영지주의자 : 그리스도의 인성 부인.
- *양태론적 단일신론자 : 그리스도의 인성 부인.
- *아리우스주의자 : 성부와 성자는 유사 본질(신성 부인)
- *아타나시우스 :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니케아 회의에서 공식 채택)

-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가 확립 된 이후
- *아폴리나리스 : 그리스도의 인성 포기
- *네리토리우스 :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강조
- *유티커스 :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거나 양성이 융합하여 단일한 본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인함.

2.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론

1)19세기 이전

- *루터파 : 그리스도의 양성은 제각기 상대방으로 침투하며, 인성은 신성의 속성에 참여한다. 이는 일종의 유티커스주의 혹은 그리스도의 양성 혼합주의이다.
- *개혁파 : 양성이 한 위격으로 귀속될 수 있다. 전지 하지만 제한된 지식을 가졌고, 편재하지만 일정한 시공간에 한정되었다.
- *제2 스위스 신앙고백 : 그리스도 안의 신성이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으로 아직 세상에 계시며 또한 모든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2)19세기(기독교론의 제2시대)

- *새로운 관점은 인간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론이다. 그것은 교회의 신앙의 파괴적이다. 초자연적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자리를 내 주었고, 양성 교리는 신적 인간 교리로 대체되었다.
- *슐라이에르마허
- *헤겔
- *겸허설(케노시스 이론)
- *리츨
- *현대신학 : 근대의 범신론적 내재성 관념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

신인간의 범신론적 동일시가 자리 잡았다.

<그리스도의 직분>

A. 선지자직

- *구별의 중요성 : 하나님에 의해 원래 피조 된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존재였고 지식과 오성,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하등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
- *죄는 인간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실 필요가 있었다. 그는 선지자로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을 대표하며, 왕으로서는 통치하시고 인간의 본래적 지배권을 회복시키신다.

2. 선지자의 임무

-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낸다. 가르침, 권면, 훈계, 영광스러운 약속, 엄한 책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목양적 훈계자이며, 윤리적, 영적 측면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다.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항거하고,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며, 영적 봉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진리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임무이다.
- *만일 백성들이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동족을 율법과 증거된 말씀으로 돌이키고, 악인에게 임할 진노를 선포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도 선포한다.

3. 그리스도 선지자적 사역의 구분

- 1) 성육신 이전 : 선지자의 교훈, 신자들의 영적 깨달음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신다.
- 2) 성육신 이후 : 교훈과 이적,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로,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으로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조명과 감화로 선지자 사역을 수행한다.

B. 제사장직

1. 제사장의 성경적 개념

- 1)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 :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교사도 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선지자와 상이했다. 선지자가 윤리적, 영적인 의무, 책임, 특권을 강조했음에 비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요건인 의식 준행을 강조했다.
- 2) 제사장의 기능 : 죄를 속하기 위해서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린다.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2. 제사 개념

- 1) 선물설 2) 성례적 교제설 3) 송배설 4) 상징설
- 5) 속죄설 : 희생제사는 원래 속죄적이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짐승을 죽이는 근본 취지는 제사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 속하려는 것이다. 노아의 번제는 속죄적이다. 욥의 제사는 자녀의 범죄함이다. 희생제사는 고난과 죽음을 함축하는 피를 흘렸다.

3.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상징과 예표

1) 속죄적, 대속적 성격 :

- *죄와 죄책의 전이를 상징하는 행위가 분명한 안수
- *죄를 덮는 행위로서 제단과 속죄소에 피 뿌리는 것

2)예표적, 예언적 성격 :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그의 속죄 죽음을 예시한다
*하나님의 어린양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8-2강)

2.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의 제2 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때가 차매 그가 오셔서 인성을 받으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분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그 결과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눌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 결합으로 말하면,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고,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중보자의 두 성품 : 신성과 인성>

*니케아 회의(325년)와 콘스탄티노플 회의(381년)에서 삼위일체 교리(그리스도의 신성)

*영지주의 :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한다(인성 부인)

*역동적 단일신론 : 그리스도와 성령이 성부에 종속되었다(신성 부인)

*양태론적 단일신론 : 그리스도의 인성 부인

*아리우스주의 : 그리스도와 성령은 단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신성 부인).

*아폴리나리스주의 :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참된 인성을 소유하지 않는다(인성 포기)

*네스토리우스 : 그리스도 한 인격이라기 보다는 두 개의 분리된 인격이다(신성 포기)

*유티커스주의 : 단성론이다.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다(그리스도의 양성 부인).

*칼케돈 회의(451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 성문화되었다.

*19세기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이다. 교회의 신앙을 파괴한다. 초자연적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자리를 내 주고, 양성 교리는 신적 인간 교리로 대체되었다.

*슐라이에르마허 : 그리스도는 인성이 이상적 완성 단계까지 승화된 새로운 피조물.

*헤겔 : 그리스도는 인종적 발전의 최고 단계이다.

*겸허설(케노시스 이론) :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이 되었다. 신인간의 범신론적 이해.

*리츨 :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이룩한 업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호칭을 받는다.

*현대신학 : 모든 인간은 신적이다. 다만 그리스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양성 교리가 자취를 감춘다. 신인을 범신론적으로 이해한다.

<중보자의 두 성품 : 성경의 증거>

*그리스도의 양성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하나, 성경이 양성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신성)

*이사야9:6절 :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가5:2절 :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1: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라.

*롬9:5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인성).

*마26: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요4: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고전15: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인성과 신성의 통일 : Unity of Person in Christ>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왜, 참 인간이어야 하는가?

*인성과 신성의 통일(The two natures united in one Person)

*The Person of the Mediator is not only divine but divine-human

*He is the God-man, possessing all the essential qualities of both the human and the divine nature.

*그 결과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었다. *그 결합으로 말하면,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고,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니 오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다.

3. 이와 같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소유하신 주 예수님은 성별되셨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그와 동시에, 그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가 있었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은혜가 충만하셨다. 그렇게 되신 목적은, 그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럽힘이 없으시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셔서, 중보와 보증의 직무 실행에 철저한 자격을 갖추시려는 것이었다. 그 직무로 말하면,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 세우셔서, 모든 능력과 심판을 그의 수중에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수행하시도록 명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떻게 그의 중보적 사역을 위하여 소양을 갖추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연합하더라도 그 인성이 전적으로 참 인간적인 것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가 그의 직분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죄가 없는 것 외에 우리와 똑 같은 인간이다.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8-3강)

4.이 직분은 주 예수께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셨고, 그는 이 직분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서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친히 그의 영혼 속에 극도의 고뇌를 견디셨고, 그의 몸에도 극도의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시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렀었는데도 썩지 않으시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전에 고난당하셨던 동일한 몸으로 일어나신 것이다. 그는 그 후에 역시 같은 몸으로 승천하셔서 그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 그가 이 세상 끝 날에 인류와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려고 다시 오신다.

비하의 신분(The State of Humiliation)

*의미 : 천지의 주재이시고 최고 입법자이신 분이 그 백성들을 위해 율법의 계약적 형벌적 조항을 이행하고자 스스로 율법 아래 속하신 사실이다. 그는 우리 죄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셨다.

*단계 :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지냄, 음부로 내려가심

1.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

*성육신이 필요성 : 인간의 원죄로 인해 성육신이 불가피하다(타락 전, 혹은 타락 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인간이 육체(human body)를 입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성(human nature)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그의 인성을 모친의 실체로부터 취하셨다.

*초자연적 잉태와 동정녀 탄생으로 실현된 성육신 : 예수는 행위언약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다.

2.그리스도의 고난

*성육신에게 시작된 고난은 그의 생애 끝의 대수난에서 마침내 절정에 도달한다.

*그는 육신과 영혼으로 고난 받으셨다

*고난의 원인 : 노예의 지위에 처해야 하고, 복종의 의무 아래 있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 죄악 되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죄인들과 교제하고, 생활의 빈곤, 마귀의 시험, 동족의 증오와 배척을 당해야 했다.

*고난의 독특함 : 자연적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 행위의 결과이기도 했다.

3.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으로 의식적 평안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상실하고, 충만한 신적 진노를 고통스럽게 인식했다.

*죽음의 사법적 성격 : 자연적이거나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법정의 판결에 의해 돌아가셨다. 불법자로 간주되고 범죄자로 정죄되었다.

4.그리스도의 장사

*흙으로 돌아감은 죄의 형벌이다. *매장은 죄인의 비하를 상징하기 위함이다.

5.음부로 내려가심

*벤전3:18-19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개혁주의 해석 :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 홍수 전에 살았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벧전4:4-6절 :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죽음 자는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죽지 않았다.

*로마교 : 선조 림보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루터파 : 자신의 승리를 알리고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성공회 : 영혼은 의인들의 거쳐인 낙원에 내려가서 진리를 보다 완전히 설명하셨다.

*결론 :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옥행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에 그의 영혼을 천부께 의탁하셨다. 이것은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능동적으로 행하시기보다 수동적 상태로 계셨음을 의미한다. 그는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비하의 상태에 들어가셨다.

승귀의 신분(The State of Exaltation)

1.부활

*부활의 성격 ; 단순한 영과 육의 재결합이 아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신자는 장래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 최후의 대적이 정복되고 죄 값이 지불되었으며 생명의 약속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천부의 선언이다.

*부활에 대한 반론 : 허위설, 기절설, 환상설, 신화설

2.승천

*승천의 성질 : 지역의 이동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좀 더 진전된 변화를 포함한다. 천국적 영광이 충만함으로 진입했고, 천상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다.

*루터파 : 지역 이동이 아닌 상태의 변화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편재이다.

*승천 교리의 의미 : 성부가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충분하다고 인정하시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심이다.

3.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왕적 통치 :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린다.

*영원한 대제사장 : 기도와 봉사가 열납되도록 간구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계속하심 :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성경의 영감,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 교회를 인도하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심,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진리를 실현시킴으로 일하고 계신다.

4.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재림의 방식 : 육체적이고 가견적이다.

*재림의 목적 :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재림하신다. 불신자는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의 복으로 들어간다.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8-4강)

5.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또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단번에 바치셨다. 그는 이렇게 하심으로 성부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얻으셨다.

1.왜 속죄가 필요한가?

1)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숭고한 긍휼적 사랑 :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나,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든다(반론).

2)대리적 속죄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다.

*사랑 : 버림받은 죄인에게 피할 길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공의 :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본질상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3)속죄의 필요성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하나님의 공의).

*죄인의 칭의를 위한 근거로서 대리적 만족이 필요하다.

*죄란 불법과 율법을 범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따르게 되고, 죄책은 범죄자를 율법에서 빚진 자로 만들어 대리적 속죄를 필요로 한다.

4)속죄의 절대 필요성에 대한 반론

*하나님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열을 가정하는 것이고, 매우 기괴한 발상이다.

2.속죄의 성질(형벌 대속설)

1)속죄는 객관적이다.

*그리스도에 의한 객관적 속죄가 성취되었다.

*죄의 샅은 대표자인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지불되었다.

2)속죄는 대리적이다(직접적 속죄와 차이)

*대리적 속죄는 피해자 측이 제공한다. *대리적 속죄는 가장 숭고한 자비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성경적 근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죄인들을 대리한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대리적 속죄에 대한 반론

*형벌 문제를 대신함은 불법이다.

*무죄한 사람이 악인을 위해 대신 고난 받는다.

*성부가 불공정의 죄를 범했다.

*대리적 속죄를 정당화할 만한 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3)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포함한다.

*능동적 순종 :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죄인이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영생을 획득하기 위해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가졌던 계약관계에 들어가셨다.

*수동적 순종 :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한 형벌적 관계에 들어가셨다. 고난과 죽음으로 죄 값을 치르사 그의 온 백성들의 채무를 탕감하신다.

3.속죄의 여러 이론들

- 1)안셀름의 속죄만족설 :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의무 이상의 일이고, 보상을 받을만했다(반론 : 고난이 대리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 2)도덕 감화설 : 고난은 공의의 충족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유화시키고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다(반론 :속죄설이 아니라 화해설이다).
- 3)모범설 : 삶과 죽음을 통해 모범을 보이사 그 같은 삶을 살도록 감화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반론 : 대속적 성격이 없다).
- 4)통치설 : 우주의 통치자로 죄에 대해 거룩한 불쾌감을 표명했다(반론 : 형벌은 공의의 충족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이다)
- 5)신비설 :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안에 변화를 초래한다(반론 : 도덕적 감화설과 일치한다).
- 6)대리회개설 : 인간을 위한 죄의 대리적 고백이다(반론 : 그리스도는 무죄하시고 죄와 무관하시다)

4.속죄의 효과

- 1)하나님과 관련된 속죄의 효과 :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의 변화이다.
 - 2)그리스도와 관련된 속죄의 효과 :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은혜
 - 3)죄인에 대한 속죄의 효과 : 속죄가 그 의도한 사람들에 대한 구속 사역의 적용을 공적으로 획득했고, 따라서 완전한 구원을 견고하게 했다.
- *칭의를 통한 사법적 지위
 - *중생과 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최종적 복락
 - *로마교, 알미니우스, 보편속죄론자 :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이고, 구원을 확고하게 하지 않는다.

5.속죄의 범위

- 1)논점 :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 2)제한속죄(개혁파) :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리고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 3)보편적 속죄(알미니우스주의자) :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구원하려는 목적에서 죽으셨다.
- 4)제한속죄론에 대한 반론
 -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요3:16).
 -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롬5:18)
 - *제한 속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 *답변 :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으로 속죄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구원의 보편적 제공은 모든 사람의 속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한다.

제9장 인간의 자유 의지

1.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 의지에 본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외적으로 강요되지 않으며, 혹은 내적으로 어떤 절대 필연적인 본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강요되지 않는다.

*결정되지 않는다.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한다.

*신명기30: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서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개혁주의에 대한 오해 :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인한다고 하나, 개혁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보호한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유의지가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상은 능력에 대해 말한다.

2.아담은 그의 타락 이전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본래의 무죄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타락 이전 : 선을 행할 자유와 능력이 가졌으나 무죄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창세기3: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에 이를 신령한 선을 소원할 의지력이 전혀 없어졌다. 그러므로 그 후 손들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대로는 전적으로 그런 신령한 선을 싫어하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고 또 회개할 준비도 못 한다.

*타락 이후 : 구원에 이를 신령한 선을 소원할 의지력이 전혀 없어졌다(전적 타락)

*자연적 형상은 훼손되고 남아 있으나, 도덕적 형상은 소멸되었다(의, 지식, 거룩함)

*로마서8:7절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3:10절 :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타락한 후에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으나 자유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4.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에 그를 그의 본연적인 죄의 결박에서 해방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오직 은혜로만 신령한 선을 원하게 하시며, 또 행하게도 하신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남아 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만 완전히 소원하게 되지 않고 악한 것도 소원한다.

*오직 은혜로 중생하면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한다.

*인간의 의지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면 선을 행한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할 능력은 아직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그 안에 죄가 그와 함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은 기록해져 가는 과정에 있다. 완성품이 아니라 원리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언젠가는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롬7:15절 :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다.

*빌2:13절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5.사람의 의지가 선한 것만을 완전히 또는 변동 없이 자유롭게 원하게 되기는 그가 장차 영화롭게 된 상태에 이르러서만 실현된다.

*선한 것만 행하는 것은 장래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러서이다.

*점차적으로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의 일이 성취되어 그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차이는 선을 행하는 능력의 정도에 있으며, 자유에 있지 아니다. 그는 그 때가 되면 옳은 것만 행하고, 악한 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

1.하나님께서서는 영생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한하여 그 기쁘신 뜻으로 그들을 부르시되 다 음과 같이 하신다. 1)그의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2)그들을 그 본성화 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처지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런데 그 부르심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은, 3)구원받도록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 하나님께서 사리들을 깨닫게 하시며, 4)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5)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정착시키 시며, 6)또한 효과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신다. 그들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된다.

<구원의 서정>

- *하나님께서서는 영생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한하여 그 기쁘신 뜻으로 그들을 부르시되
- *구원의 서정이다.
- *부르심 *중생 *회심(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외적 소명>

- *외적인 부르심(예비적인 부르심)
- *내적인 부르심(효과적인 부르심).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 1.복음을 제시한다.
- 2.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한다.
 - 1)예비적이다. 구원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 2)일반적 또는 보편적이다.
- 3.죄사함과 구원을 약속한다.
 - 1)조건적이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 2)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유기된 자는 핑계할 것이 없다.

<내적 소명>

*구원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선한 방향으로 정착시키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한다.

- *효과적인 부름, 능력 있는 부름이다.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나타낸다.
- *그들을 그 본성화 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처지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사물을 통한 부르심 : 역사와 생활환경, 삶의 경험,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 죄의 억제, 자연적 삶의 발전, 선한 질서의 보존에 도움 된다. 일반계시, 일반은총.

*말씀을 통한 부르심 : 구원론에서는 오직 말씀을 통한 부르심만 고려한다.

- *내적 소명(효과적인 부르심)의 수단 :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어
-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행16:14).
-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36:26).

*말씀을 통한 부르심의 개념들

- 1)펠라기우스 :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2)어거스틴 :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 3)반 펠라기우스 :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수용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 4)루터 : 복음의 부르심은 항상 충족하다(성령의 내적 조명 강조하는 제세레파 반대)
- 5)칼빈 : 성령이 말씀을 인간 심령에 구원론적으로 적용시킬 때 효과적이다.

<중생>

1.중생이란 무엇인가

- 1)넓은 의미에서 중생
- 2)좁은 의미에서 중생 : 죄인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는다(개혁파)

*현대자유주의 신학 : 급진적이고 생동적이고 윤리적인 변화이다.

*종교심리학자 : 자아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2.중생의 특징

- 1)중생은 전인격적으로, 인간 본성의 즉각적인 변화이다.
- 2)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불가사의 한 사역이다. 인간은 단지 그 결과로만 인식할 수 있다.

3.중생과 효과적인 부르심의 관계

- 1)중생 : 잠재 의식에서 발생한다. 창조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 2)효과적인 부르심 : 의식 생활에서 일어난다. 목적론적이고 새 생명을 이끌어 내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4.부르심과 중생의 순서

- 1)외적 부르심이 선행한다.
- 2)중생 : 외적 부르심에서 창조적 말씀으로 새 생명을 생성시키고, 영혼의 내적 성향을 변화시키며, 마음을 조명하고, 감정을 고양시키며, 의지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
- 3)효과적인 부르심 : 영적인 귀를 가진 후 죄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를 마음에 받아들인다.

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 (10-2강)

2.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주 주시는 특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미리 내다 보신데서 생긴 것이 아니며, 인간 편에서도 성령에 의하여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전달된 은혜를 받는데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피동적일 뿐이다.

1.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거주 주시는 특수 은총이다.

1)인간은 부르심에 전적으로 피동적이다.

2)효과적인 부르심(중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1:9).

2.인간의 자유 의지를 높이는 알미니안주의 :

1)조건(인간의 의나 공로)에 의하지 아니한다.

2)예지예정론이 아니다.

3)알미니안주의 :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좌우하게 애쓴다. 예지예정론이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반영한다. 효과적인 부르심(중생)은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자량이 된다.

3.성령의 사역이다.

1)선도적이다. 2)단독적이다. 3)신비적이다. 4)주권적이다. 5)유효적이다.

4.중생의 효과적인 원인

1)인간 의지

*펠라기우스 : 중생은 오직 인간 의지의 행위이고 자기 개혁이다.

*알미니안주의와 반펠라기우스 : 중생을 최소한 부분이라도 인간의 행위로 이해하고, 인간이 진리를 통해 적용되는 신적 감화력과 협력하는 것이다. 중생에 대한 신인 협동이론이다. 전적 타락을 부인한다.

2)진리 : 성령에 의해 인간 의지에 제시된 진리는 불결함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변화하는 직접적 요인이다. 성령의 사역과 설교자의 사역은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활동하기를 기뻐하신다.

3)성령 : 성령이 중생의 효과적인 원인이다. 성령이 인간의 심령에 직접 역사하며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킨다. 죄인의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의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사역이다. 중생은 신인 협력이 아니다.

3.택함 받은 영아가 영아시기에 죽을 경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중생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 경우에 중생케 하시는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지 그의 임의로 하신다. 그 밖에도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부적 부르심을 받

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자들인 영아기에 죽은 영아들과 심한 정신질환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다.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영적 무능력이 아니라 선천적인 무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

*말씀의 전도 없이 구원받는다(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은 만인이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고,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구원받는다.

4.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참되어 나아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일반 계시로 인한 지혜와 그들의 고백하는 어떤 종교의 율례대로 부지런히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롭고 또 가증하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외적인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일반은총)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참되어 나아오지 않는다. 효과적인 부름(중생)을 받지 못한다. 구원 받지 못한다.

*종교적인 감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 죄의 억제 등

*기적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복음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자들은 구원 없다.

*WCC(세계교회 협의회)의 선교에 관한 진술 : 이방 종교의 신봉자들의 경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들은 바 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사회적, 경제적 원조를 통한 외적인 도움에 의하여 인간의 비참한 환경이 일시적으로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제11장 칭의

1.하나님께서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의 의를 주입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 주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라고 불러 주심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와 및 그의 만족한 속상(贖償)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이다. 이 믿음 그것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는 죄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우리 본성의 저 깊은 곳에 얼마만한 죄악성과 오염이 자리 잡고 있는 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

*칭의의 두 가지

*법정적 선언이다. 객관적 관계, 의의 신분을 말한다.

*어떤 사람의 실제적 주관적 상태를 고려한다.

*성경적 칭의 : 다른 사람의 의를 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그가 내적으로 의롭지 못하지만 그를 의롭다고 간주한다.

*칭의의 역사

*종교개혁 이전 : 중생과 성화를 철저히 구분하지 못했다.

*토마스 아퀴나스 : 은혜가 인간에게 주입된다. 이로써 인간은 의롭게 되며, 부분적으로는 주입된 은혜에 의해 죄가 용서된다.

*종교개혁자들 : 칭의와 성화의 혼동을 바로잡았다. 칭의의 법적 성격을 강조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면전에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점진적인 칭의 개념을 거부하고, 칭의는 순간적이고 완전하며, 완성을 위해 죄에 대한 추가적 보속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

*칭의 : 죄책을 제거하고, 영원한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내포된 모든 권리를 죄인에게 회복시킨다.

*성화 : 죄의 부패를 제거하고,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한다.

*칭의 :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판결이 적용되지만 내적인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성화 : 인간의 내면의 삶에서 일어나고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칭의 : 한번 일어난다. 반복될 수 없고 과정일 수 없다. 칭의의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완

전 칭의 아니면 전혀 칭의 받지 못함이다.

*성화 : 지속적 과정이며, 현세에서 완성될 수 없다.

*칭의의 근거?

*의의 주입하심이 아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 주심이다.

*기쁘게 받아주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한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칭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달성할 수 없다.

*칭의는 고상하고 선한 종교 의식으로 달성할 수 없다.

*칭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는 본래적으로 죄 많고 부끄러운 존재로 남아 있다.

*전가에 대해서

*전가는 생각하다. 간주하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정당하고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전가에 의하여 하신다. 전가에 의해 죄인이 법적으로 의를 소유하며 비록 본성적으로 죄인일지라도 불의가 없게 하신다.

*전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과 수동적인 순종(죄에 대해 율법의 형벌을 완전히 받으시는 것) 때문에 이중적이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죄책을 그의 것으로 간주하셨다.

*두 가지 전가(우리의 죄책을 그에게, 그의 의를 우리에게)가 없었더라면 칭의의 근거가 없다. 이 근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선언할 수 있다. 이 선언적 행위가 칭의이다.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2.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게 하는 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케 하는 것이다.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칭의된 그 사람 안에 어떤 심리 상태로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성취에 필요한 모든 다른 은혜들도 그 믿음의 열매로서 동반한다. 이처럼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

*칭의와 믿음의 관계 :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게 하는 도구이다.

*믿음으로 칭의 받으면, 믿음의 열매 곧 행함을 동반한다.

*행위로 인한 칭의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공고하게 한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제11장 칭의(2)

3.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에 의하여 칭의 되는 자들의 죄 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그 결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성부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만족한 속상을 값없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다. 이렇므로 그들의 칭의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요하신 은혜는 죄인들이 받는 칭의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칭의 :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가?

*칭의의 근거 :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죄 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대속은 그들 안에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칭의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칭의의 요소

*소극적 요소 : 수동적인 순종에 기초한다.

*칭의 시 부여된 용서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하며, 따라서 모든 죄책과 모든 형벌의 제거를 포함한다.

*칭의는 반복되지 않음과 어느 누구도 칭의된 자를 송사하지 못하며, 그가 정죄를 면제받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로마교는 세례를 받은 후 범죄한 죄를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율법폐기론자는 신자들의 죄는 옛사람에게는 죄로 간주되지만 새사람에게는 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칭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죄인에 대한 객관적 선언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칭의는 또한 신자의 의식에 이전되는 전이 행위이다. 사면의 신적 판결은 죄인에게 전달되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호의를 기쁨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용서와 새로운 자녀 됨의 인식은 종종 죄에 의해 방해받고 흐려지지만, 고백과 기도, 갱신된 신앙의 활동에 의해 다시 소생되어 강화된다.

*적극적 요소

*능동적인 순종에 근거한 요소이다.

*칭의는 단순히 죄 용서 이상이다. 하나님과 화평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한다.

*양자됨 : 양자됨은 죄인을 자녀의 지위로 택하는 것이다.

*양자됨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의 순종의 법아래 두어지며, 동시에 자녀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는다.

*복의 상속자가 된다. 근본적인 복은 성령의 약속 즉 성령의 형태로 약속된 복과 그의 아들의 영으

로 표현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들의 장래 모든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영광은 현재의 고난 이후에 온다.

4.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가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 함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실제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실시하심으로 비로소 실현된다.

*칭의의 시기

*영원 전의 칭의

*율법폐기론자들은 죄인의 칭의가 영원 전에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 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영원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시간 안에서의 수행 혹은 구속의 복을 획득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를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중보 사역을 마치신 그 시간부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칭의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근거에 준하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의를 소유하게 되는 성령의 사역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료되었으나 그들이 믿는 때만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

5.의롭다 하심이 된 자들이 혹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범죄 한다 해도 칭의 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정적 분노를 당하게 된다. 그런 때에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

*로마교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한다.

*성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적으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이다. 이 거룩은 나중에 사소한 죄나 죽을 죄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결국 의로운 상태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러기에 자주 성례전적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 항상 주기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죄로 인해 성례적인 은혜가 소멸되고, 성례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소멸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의 본죄(실제로 범한 죄)를 가볍게 보시는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불쾌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의 맛이 어떤 것인지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6.구약 제도 아래 있던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제도 아래 있는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하다.

*세대주의는 구약 시대의 성도의 칭의와 신약시대의 성도의 칭의가 모든 면에서 동일함을 부인한

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한다.

제12장 양자 됨 adoption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분 때문에 의롭다 함이 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케 해 주셨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효에 들게 되어 자녀 된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김이 되어, 보호를 받아,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약속을 기쁨으로 누리되, 영원한 구원의 후사 자격으로 누린다.

1.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 *외부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기는 행위이다.
-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어두움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들이었는데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뜻한다.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2. 양자됨으로 누리는 특권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효에 들게 되어 자녀 된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 *양자되기 전까지...
- *고아이다.
-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

*현대주의자들 :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보편적 형제됨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하였다.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 *놀라운 은혜이다.
- *고아이다. 슬프다.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구나!
-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

3.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따라서 영접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게 하신 이는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 *신자는 심령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4. 불쌍히 여김이 되어, 보호를 받아,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 *악에서 구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5.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외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6. 구속의 날까지 인 치심을 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되, 영원한 구원의 후사 자격으로 누린다 (sealed to the days of redemption, and inherit the promises, as heirs of everlasting salvations)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칭의의 요소(소극적 요소) : 수동적인 순종에 기초한다.

*칭의 시 부여된 용서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하며, 따라서 모든 죄책과 모든 형벌의 제거를 포함한다.

*적극적 요소 : 능동적인 순종에 근거한 요소이다.

*칭의는 단순히 죄 용서 이상이다. 하나님과 화평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한다.

*복의 상속자가 된다. 근본적인 복은 성령의 약속 즉 성령의 형태로 약속된 복과 그의 아들의 영으로 표현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들의 장래 모든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영광은 현재의 고난 이후에 온다.

제13장 성화

1.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새로 지어 주시는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실제로, 개인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들이 받는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및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성화의 내용은, 그들에 대한 죄악의 지배 관계가 전체적으로 멸절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어 죽어가는 동시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저 생명과 힘을 얻게 되어, 점차 그들의 실생활에 성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성결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새로 지어 주시는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실제로, 개인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로 죄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중생과 다른 점

*중생은 단번에 완성되고, 성화는 과정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창출하며, 그 거룩함의 결과에 있어서 많은 단계들이 구분될 수 있다.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다. 중생에서 시작된 갱신의 사역은 성화에서 지속된다.

*칭의와 다른 점

*칭의는 법적이고, 성화는 내적 삶에서 이루어진다.

*칭의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화는 오랜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칭의 : 죄책을 제거하고, 영원한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내포된 모든 권리를 죄인에게 회복시킨다.

*성화 : 죄의 부패를 제거하고,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한다.

*칭의 :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판결이 적용되지만 내적인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성화 : 인간의 내면의 삶에서 일어나고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칭의 : 한번 일어난다. 반복될 수 없고 과정일 수 없다. 칭의의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완전 칭의 아니면 전혀 칭의 받지 못함이다.

*성화 : 지속적 과정이며, 현세에서 완성될 수 없다.

<성화의 근본적인 배경>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저도 범 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구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양자가 되어 그의 가족이 되면 죄가 그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점에서 그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

<성화의 조성자와 수단>

*하나님의 말씀과 및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 사용될 때 성화의 수단이 된다.

*성경은 거룩한 실천과 행위들에 대한 모든 객관적 조건들을 제시한다.

*성경은 동기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영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금지와 권면과 사례들을 통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한다.

*성례 : 로마교회에 의하면 최고의 수단이다.

*개신교는 이를 하나님 말씀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며,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말씀이 수반된다.

*섭리적 인도(야곱이 이스라엘 된다)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성화의 강력한 수단이다.

<성화의 내용>

*성화의 내용은, 그들에 대한 죄악의 지배 관계가 전체적으로 멸절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어 죽어가는 동시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저 생명과 힘을 얻게 되어, 점차 그들의 실생활에 성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성결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성화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증진 강화시키는 것이다.

제13장 성화(2)

2.이 성화는 신자의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금생에는 불완전하여 그의 모든 지체에 부패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 있다. 거기서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

*성화의 불완전

1)이 세상에서 성화는 완전할 수 없다. 성도라 할지라도 영과 육은 계속적으로 갈등하며(롬7:14;요9:3), 여전히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시51:1). 더욱 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롬7:7-26).

2)성화는 사망 순간, 혹은 사망 직후에 완성되며, 몸의 부활 시에 완성된다.

*영적인 전쟁 : 거기서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

3.그 남아 있는 부패성이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한다. 그렇게 되어 성도들이 은혜로 자라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점점 성결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 : 그 남아 있는 부패성이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 보일 수는 있으나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극복한다.

<성화의 본질>

1.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이다.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하는 한 인간이 이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말씀과 성령)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할 것이 기대되지만, 성화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성화는 결코 인간의 영적 발전에 있어서 자연적인 과정으로 제시되거나, 현재 자유주의 신학에서 행해지듯 인간의 업적으로 격하되어서는 안 된다.

2.성화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옛사람, 죄의 몸의 극복 : 죄로 인해 인간 본성의 부패와 타락이 점진적으로 제거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2)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해 창조된 새사람의 소생 : 성화의 전반부가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이 부분은 적극적이다.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한 실천들이 증대되고 새로운 생의 과정이 창출되고 촉진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성화의 두 부분은 동시적이다. 옛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온다.

3.성화는 인간 전체 즉 몸과 영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에 영향을 준다.

4.성화는 신적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사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자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개선을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데 있어서 근면해야 한다.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신앙)

*희심의 적극적인 요소이다.

*믿음은 희심의 일부분이고 칭의와 도구적으로 연관된다.

1.종교개혁 이후

*스콜라주의자들 : 신앙 자체가 칭의를 분여하고 획득하고 소유하는데 있어서 실제적 혹은 공로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이해한다.

*종교개혁자들 : 칭의적 신앙이 그 자신이 공로적 혹은 내재적 효력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며 포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신앙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간의 행위로 이해한다.

*알미니우스자 : 하나님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인간의 공로적 사역이라고 이해한다.

*술라이에로마허 :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영적 욕구가 충족되는 최초의 경험이다.

*자유주의 신학 : 하늘이 일으키는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업적이요 선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로적 행위요, 교리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시키는 노력에 의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바르트와 브룬너 : 어떤 교리보다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신적 명령이나 신적 행위에 대한 신적 반응에 불과하다.

2.신앙의 네 가지 종류

1)역사적 신앙 : 도덕적, 영적 목적 없이 진리를 순전히 지성으로 이해한다. 이 신앙은 인격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어떤 역사를 받아들이듯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다. 이는 심령에 뿌리박지는 못한다. 인간적 신앙이요, 신적 신앙은 아니다.

2)이적적 신앙 : 이적이 어떤 사람에 의해 혹은 그를 위해 행사될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이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 로마교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개신교는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하나님은 이적의 전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또 다른 이적의 시대를 대망하도록 인도한다.

3)일시적 신앙 :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감동을 일으키지만 중생한 심령에 뿌리박지 못한, 종교적 진리들에 대한 확신이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의 시대에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신앙이다.

4)진정한 구원적 신앙 :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중생한 생명에 뿌리박은 신앙이다. 구원적 신앙은, 심령에 의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의존(신뢰)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3.신앙의 요소

*2항 :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성경 구절들의 각기 내용에 준하여,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고,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고 그에게서만 안식함이다. 그 목적은 은혜 언약대로 칭의, 성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1)지적 요소

*지식의 성격 :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인다.

2) 감정적 요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이 복음으로 내 안에서 일으키는 내면으로부터의 신뢰이다.

*지식과 동의를 신앙이라는 동일한 요소의 두 측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지식이란 보다 수동적이며, 동의는 보다 능동적이고 이행적 측면으로 이해된다.

3) 의지적 요소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허물 많고 타락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복속하고, 그리스도를 용서와 영적인 생활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

4. 신앙의 대상

1) 일반적 신앙 :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신적인 계시 전체이다. 로마교는 소위 사도적 전승도 포함한다.

2) 특별한 신앙 : 이는 보다 제한적 의미에서의 구원적 신앙이다. 특별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다.

5. 신앙의 근거

*1항 : 믿음의 은혜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 주는 것이다. 그 은혜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일반적으로는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증거와 강화도 역시 말씀 사역으로 되어지고, 성례와 기도로 말미암아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궁극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로마교는 신앙의 궁극적 근거를 교회에 둔다. 합리주의자들은 이성만 인정한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이를 기독교적 경험에서 추구한다. 칸트와 리츨, 다수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인간 본성의 도덕적 요구에 둔다.

6. 신앙과 확신

*3항 :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도에 차이가 있어 약한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으며, 자주 또는 여러 면으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이 여러 면으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객관적 신앙의 확신 : 그리스도가 그가 천명한 모든 것이 되시며,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고하고 의심 없는 확신이 있다.

*주관적 신앙의 확신 : 안정과 평안을 느끼게 하며, 많은 경우 개별적 신자가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함에 따라 일어나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로마교 : 신자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친다.

*신앙이 교회의 교리들에 대한 단순한 지적 승인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역사적 신앙과 구원적 신앙의 구분을 폐기한다.

*로마교는 지적 요소를 신앙에서 제거한다. 실제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해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진정한 신자로 간주된다.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심(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야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가능하다.

*신앙고백서가 구원의 교리를 다룸에 있어서 회심(회개와 믿음)에 앞서, 칭의 영자, 성화를 다룬 이유는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의 반응(회개와 믿음)을 생각하고자 한 것이다.

회심

A. 회심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정의

1. 민족적 회심 2. 일시적인 회심 3. 반복적 회심 4. 진정한 회심

B. 회심의 성격

1. 회심은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보다는 재창조적 행동에 속한다. 인간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바꾼다.

2. 회심은 잠재의식이 아니라 죄인의 의식 영역에서 발생한다.

3. 회심은 옛사람을 버리고 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의식적 출발을 표시한다.

4. 회심은 한번 일어나고, 반복될 수 없다.

5. 회심이 현저한 위기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점진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옛 신학은 항상 돌발적인 회심과 점진적 회심으로 구분해 왔다.

6. 심리학자들이 회심을 청년기의 일반적이며 자연적인 현상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우리는 회심이란 종교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다.

C. 회심의 요소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분된다.

*회개는 과거와 관련되고, 직접 성화와 관련된다.

*믿음은 미래와 관련되고, 칭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1. 회개의 요소

1) 지성적 요소 :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를 인정한다.

2) 정서적 요소 :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애통한다.

3) 의지적 요소 : 목적의 변화, 죄로부터 내적으로 멀어짐, 용서와 정결을 구한다.

2.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회개의 개념을 전적으로 외재화 했다.

*고해성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참회, 고백, 보속, 사죄선언이다.

*천주교는 원죄에 대한 애통을 제외시키고 오직 개인적 범죄에 대한 애통으로 한정시킨다.

*고백 : 법적으로 사면하는 사제에 대한 고백이다.

*보속 : 죄인이 속죄하는 것, 고통을 참고 어렵고 불쾌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외면적 행위들이 실제로 죄를 보속하는 것의 중심 사상이다.

*죄장 소멸 선언 : 사제가 법정적으로 선포한다.

*회개에 대한 천주교의 견해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할 수 있고, 또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알미니안의 회개에 대한 교리 : 회개가 중생에 앞선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

D. 회개에 대한 성경적 견해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다. 그러므로 복음사역자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그리스도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전파해야 된다.
2.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위배됨을 느끼게 되고, 2)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3) 따라서 자기의 범죄한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4)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목적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명대로 행하려는 것이다.
3. 회개가 죄에 대한 속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혹은 죄인이 용서받는 원인도 될 수 없다. 사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누구든지 사죄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절대 필요하다.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범한 자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한다. 그와 동시에,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오지 못한다.
5. 사람은 대략 회개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는 마땅히 자기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의 깊게 힘써 회개할 의무가 있다.
6.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의 용서를 기구해야 한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같은 원칙에서 누구든지 개인 형제에게는 단독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 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야 되고, 상처받은 측이 교회 공동체인 경우에는 공적으로 자백하여 회개를 선포할 것이다. 상처받았던 측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회개자와 화해를 이루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된다.

*로마교만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충실한 교회들만큼 이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교회는 없다

- 1) 모든 죄가 단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한다.
- 2)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을 고백하기보다 마음의 죄악성을 철저히 고백해야 한다.
- 3) 로마교보다 훨씬 더 일관성을 요구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나 소멸하시는 불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에게는 중간에 설 수 있는 사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 1) 로마교의 사제는 그 역시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 까닭에 그렇게 할 수 없다.
- 2)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추악함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죄는 범함을 당한 그 당사자만이 용서할 수가 있다. 개인들 간에 개인적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개인들에 대한 범죄와, 공적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집단체에 대한 범죄를 제쳐놓고는 모든 고백과 용서는 죄인과 그의 주님 간에 이루어진다.

제16장 선행

1. 선행이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성경 말씀의 보장 없이 단지 인간의 맹목적인 열심에 의하여 고안된 것은 선이 아니며, 또 혹은 단지 선의의 위장으로 선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선행의 본질

1) 신학적인 의미

*중생의 열매이다. 중생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외적으로 일치할 뿐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최종 목적은 인간의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2) 일반적인 의미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피상적인 선행을 행한다. 하나님의 율법과 외적으로 일치한다.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라는 영적 뿌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예: 독신과 금욕과 금식이 선행인가?

*예: 불신자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는 것이 선행인가?

*예: 믿음의 강한 자가 먹는 것으로 약한 자를 실족시키거나, 반대로 약한 자의 기준이 강한 자의 기준인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행들은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요, 또한 증표이다. 신자들이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나타내며,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신앙고백을 명예롭게 하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

*선행의 필요성

*구원의 공로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포도나무와 가지이다.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율법폐기론자(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와 세대주의자(율법을 지킬 수 없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성령을 받고 점진적으로 성화하면서 선을 행해야 한다.

3. 신자들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 외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를 필요로 한다. 그 감화에 의하여 그들이 그의 기쁘신 뜻을 원하게도 되고 행하게도 된다. 그렇다고 하여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는 때에는 어떠한 책임이든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듯이 태만해져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 일 듯이 일으키려고 부지런히 선행을 힘써야 한다.

- *그리스도인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자신이 아니라 성령에서 나온다.
- *중생한 후에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다.
- *성령이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핑계하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
- *성령은 우리가 선을 행할 마음만 가지면 선을 행할 능력을 준다.
- *성령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일으켜야 한다.

4.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책임 이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요구 보다 더 많이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에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1)로마교회의 선행의 입장

-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공덕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을 축적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 *성모 마리아나 성자들은 구원받고 남을 여분의 선행을 획득했다. 선행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2)성경적 입장

- *선행은 공로가 아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보상을 받아도 엄밀하게 공로는 아니다.
- *값없는 선물로 구원받는다. 행위는 어떤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
-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이다.
-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선행한다.
- *최선의 선행도 이생에서는 불완전하고,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 *신자의 선행은 영원한 보상과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순종은 영원하고 완전한 보상을 얻을 공로가 못된다.

- *금생에서 어떠한 신자도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바울은 괴인의 괴수이다.
- *그럼에도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선행이 열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선행도 은혜이고, 상급도 은혜이다.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갑절로 충성하면 상받고, 한 달란트 받은 좋은 책망 받는다.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7.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행실이 그 자체로서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고 자타에게 유익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으로 정결해진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그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된 것이 아니며,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 행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런 정도의 선도 행치 않을 경우에는 더욱 죄가 많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형식적인 선행을 할 수 있다.
- *형식적인 선행이 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화려한 선행이라 한다.

*하나님의 일반은총 때문이다.

제17장 성도의 궁극적 구원

1.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키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 받는다.

*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회심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진노와 영원한 파멸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성도의 견인 :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며 은혜의 신분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이 신분에서 완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은혜의 신분에서 끝까지 견디어 내어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교리이다.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 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10:27-29절)

*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1:6)

*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2. 성도들은 궁극적 구원은 그들의 자유 의지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다음 여러 가지 여건에 의존한 것이다.

1) 변할 수 없는 선택(예정) : 선택된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될 것이며 필히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선택은 구원으로의 선택이다.

2)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으로부터 : 그리스도는 자신의 속죄 사역에서 죄인의 용서와 열납을 획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렇게 완전하고 효과적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칭의 받은 자들이 다시 정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백성을 위한 그의 중보기도는 항상 효과적이다.

3) 성령의 내재와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씨

* 마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 성령이 역사하다가 곧 그를 포기할 것이며, 천상적 출생의 생동적 불꽃이 일시적으로 불붙다가 완전한 흑암 속으로 스러지게 되며, 새로운 출생에서 중개된 영적인 생명은 돌발적이며 발작적이어서 죽은 영혼에 외면적으로 발현하는 듯하다가 결국 소멸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과소평가 한다.

*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부터 : 그들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다시 절단되어 신적 이상을 무효케 할 수는 없다. 연합은 항구적이며 불변하는 원인 즉, 하나님의 영원하고 값없는 사랑에서 발원하므로 항구적이다.

4) 은혜 언약의 신실성이다.

위에 모든 여건들로부터 궁극적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보장된다.

*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10:28)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세상의 시험, 신자들 속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득세 또는 은혜의 방편 사용에 대한 그들의 태만 때문에 혹시 그들도 중한 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죄에 빠져 얼마 동안 계속 지나면서,

- 1)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 2) 성령을 근심시키며
- 3) 그들이 받던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케 되며
- 4)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며
- 5) 그들의 양심이 상하게 되고
- 6) 남을 해롭게 하며
- 7) 그들 자신이 현세적 심판을 받게 된다.

* 일시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들 : 사단과 세상의 시험, 신자들 속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득세 또는 은혜의 방편 사용에 대한 그들의 태만 때문에 혹시 그들도 중한 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 일시적인 타락의 결과 : 그들이 그렇게 죄에 빠져 얼마 동안 계속 지나면서, 1)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2)성령을 근심시키며 3)그들이 받던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케 되며 4)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며 5)그들의 양심이 상하게 되고 6)남을 해롭게 하며 7)그들 자신이 현세적 심판을 받게 된다.

* 이들의 비극적인 타락을 가볍게 보아서 안 된다. 두려움을 느끼고 떨어야 한다.

* 기독교인은 어떤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팽팽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끊임없는 투쟁이요, 젓 먹던 때의 힘까지 다 쏟아야 하는 몸부림인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 참된 신자는 타락하는 일에 대해 아무 걱정할 것 없다거나, 아니면 타락하더라도 치명적인 손해는 입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사실은 신자라도 겨우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그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다. 비극적인 타락이 있긴 하지만, 그는 곧 일어나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끝까지 그 싸움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것이다.

결론

1.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한다면 구원은 인간 의지에 의존하게 된다.

2.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교리는 큰 위로와 능력의 근원, 즉 감사에 대한 자극, 자기 헌신의 동기, 위험시에는 불기동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한다.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1. 외식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한 듯이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속는다. 그들의 소망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을 금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내세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

2. 이 확실성은 단지 부실한 소망에 근거하여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상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패 없는 신앙적 확신이니, 이 확실성의 성립 근거는,

- 1) 구원 약속을 내용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
- 2) 구원 약속을 받은 자들의 속에 내재하는 은혜들의 증거,
- 3)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이다.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늘나라 기업의 보증이다.

1)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때때로 그릇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마침내는 그것이 드러나 버린다.

2) 참된 신자들이 갖는 참된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은 신자들을 속이지 않으며 오히려 확증을 주고, 이 확신으로 인하여 신자들은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점

3) 이 확신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들, 신자에게 확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한다.

* 확신의 성격(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의 차이점)

- 1) 겸손/교만
- 2) 거룩한 생활/게으름과 자만에 빠짐
- 3) 솔직한 자기반성/겉모양으로 만족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을 회피함
- 4)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를 갖고/그렇지 못함

* 무엇을 근거하느냐에 달렸다(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의 차이점)

- 1)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한 확실성에 근거하나/인간의 말에 근거한다.
- 2) 하나님의 약속들의 있는 그 은혜들을 실제로 소유함으로 증거하나/거짓은 그러한 것의 본만 따 것에 근거한다.
- 3)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근거하나/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거짓 영의 증거를 근거한다.

3. 이 실패 없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도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난관으로 더불어 투쟁하게 될 수도 있다. 신자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비범한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성경말씀, 성례, 기도)을 바로 활용함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들의 부름 받은 사실과 택함 받은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힘쓰기만 하면,

- 1) 그의 심령은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 2)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부요해지고,
- 3) 힘 있게 또는 감심으로 순종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위의 몇 가지는 확신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되어 신자는 자기의 타락하는 경향을 막을 수 있다.

* 신앙의 진실성은 장애와 난관을 많이 겪으면서 참아 견디는 결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시 동안 진실할 수 있으나 그 진실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신자가 확신을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세월이 걸린다.

*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는 재래의 거룩한 규례들(성경말씀, 성례, 기도) 이외에 별도의 새 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앙의 성장에는 성경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거룩한 규례들을 성경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받는다.

4. 참된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동요되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 원인들은,

- 1) 확신을 보전하는 조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
- 2)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한 경우,
- 3) 어떤 급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진 경우,
- 4)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그 빛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경우 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전혀 상실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심령의 진실성, 책임에 대한 양심 작용도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만한 바탕에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적당한 때에 구원의 확신이 소생될 수 있다. 그렇데 됴므로 그들은 전적인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런 확신으로 말미암아 부주의와 게으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한다.

* 우리가 지정된 은혜의 방편들을 힘써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에 일치하는 거룩함을 얻고자 노력할 때 그것을 지탱케 된다.

* 나무가 열매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은혜요, 나무는 힘쓰는 것이요, 열매는 확신인 것이다.

* 확신은 열매요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때때로 흔들리며, 약해지고, 일시 중단될 수가 있게 된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신앙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진실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이 신앙은 중요하지만, 그것 없이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나 사실은 구원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도(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자기의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절대적인 확신은 구원하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 참된 신자는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는 참 신자이기 때문에 슬픈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확신의 뿌리는 파괴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되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신자들은 심한 절망에서도 버티어내는 것이다.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시되 행위 언약의 의미로 주셨다.

1) 그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대표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서도 순종(아담 안에서)을 요구하시는 구속력을 가졌다. 이 순종은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정확한 영구적(계속적)인 순종이다.

2) 아담이 이 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생이 약속된 반면에,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사망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되었다.

3)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다.

- * 하나님이 주신 율법(행위 언약) :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도덕률
- *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 모든 사람이 도덕적 판단력과 양심의 증거를 가진다.
- * 순종하라 :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영구적인(계속적인) 순종이다.
- * 조건 : 지키는 여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받는다. 아담이 율법을 어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스려 산다.
- * 지킬 힘을 주셨다 : 율법은 하나님과 선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힘이다.

2. 이 율법(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도덕률)은 아담의 범죄 후에도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하였다 그러다가 그 도덕률 자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록의 한 형태로 주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인데,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요, 다음 여섯 가지는 인간에게 대하여 우리의 행할 도덕이다.

- * 십계명 : 이 율법은 처음에는 양심에 새겨졌다가,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두 돌판 위에 요약하여 게시하였다.
- *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

3. 위의 도덕적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아직 미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인 율법을 주시게 원하셨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인데 두어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

1) 예배에 관한 것 :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베푸실 은혜와 그의 행동과 그의 고난과 공로에 대하여 예표하는 모형들이다.

2) 교훈에 관한 것 : 여기서는 도덕적 책임을 말해 주기도 한다.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

- * 의식법은 폐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됨으로 그것들의 유용성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 * 짐승의 제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4. 하나님께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러 가지 재판법을 주셨다. 그 법의 효용은 그 시대 국가가 없어짐과 함께 끝났다. 그 법의 정신은 공정성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요시되지만, 그 법의 형태는 지금 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 신정통치가 끝남으로 시민법은 폐기되었다.

5. 도덕법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 영원토록 순종을 요구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만 아니고 또한 그 율법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도덕법을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도 폐지하지 않고 도리어 강화하셨다.

6. 참된 신자는 행위 언약 아래 속하지 않으므로 율법에 의하여 의롭다 함이 되거나 혹은 아주 망하도록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나 일반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크게 유익하게 사용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 1) 생활 지침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에 준하여 그들은 가르침을 받으며, 또 제재도 받아야 한다.
- 2)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품과 심령과 생활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실을 발견케 되며
- 3)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자신을 점검함으로 더욱 죄책을 느껴 겸손해지며,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게 되며
- 4)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고, 또한 그의 온전하신 순종을 대신 속죄의 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

*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도 율법은 필요하다.

- 1) 죄에 대한 율법의 금령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옛 성품의 소원을 견제하는데 필요하고
- 2) 불순종에 대한 율법의 경고들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죄 값을 보여주며, 따라서 현세에 그들이 죄 때문에 무슨 고난을 기대해야 함을 보여준다(그들이 참된 신자들이니만큼 율법의 저주, 곧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
- 3) 율법의 약속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시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들은 순종의 결과로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행위 계약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율법 사역이 선행은 장려하고 악행은 제지시키는데, 그것이 율법 아래서만 국한된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은혜 아래서도 율법의 사역은 계속된다.

- 1)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언약 아래 있지 않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 2) 그리스도인은 은혜 언약 아래 있다. 십자가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 3) 율법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 4)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

7. 위에 진술된 율법의 용도가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지 않고 도리어 서로 거기에 잘 융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설득시켜서 그로 하여금 자의로 순종하게 하신다. 그렇데 된 신자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요구를 자유로이 또는 기쁘게 행하게 된다.

*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불신자에게도 유익이 있다.

* 은혜 언약 아래 있어도 율법이 필요하고, 유익을 준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생활로 지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는다.

*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반율법주의는 잘못이다.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1.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제도 아래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과 같은 해방과 특권으로 성립된다.

첫째, 해방의 측면에서,

- 1) 그들이 그 죄책에서,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또한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됨.
- 2)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과 관련된 결박에서, 또한 죄악의 지배에서 해방됨.
- 3) 그들이 해로운 고난에서, 사망의 쏘는 것에서, 무덤에서 또한 영원한 정죄에서 해방됨.

둘째, 특권의 측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감과 하나님께 순종함인데, 이 순종은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고 어린 아이 같이 단순하게 행하는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위의 모든 축복에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도 아래서는 신자들의 자유와 특권이 훨씬 더 증가되었다. 이들은,

- 1)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복속했던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고,
- 2)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 3) 더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 인간의 의지가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셨다.

* 그러나 타락된 상태의 인간은 전적부패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가 기뻐하는대로 행할 자유가 있으나,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 여기서 자유는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산 것이고, 성령이 부여해 주시는 자유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다.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성령이 심령에 들어와 지배한다.

*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다. 세상 풍속과 생활양식에 물들지 않는다. 사탄이 더 이상 왕 노릇 하지 않는다.

* 사망에서도 해방된다. 죽음은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다.

* 자유는 방종과 혼동되어서 안 된다. 자유를 악을 행하거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구실한 속박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내면적인 소원과 능력, 그것이 참 자유이다. 그리고 율법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기뻐하는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욕과 의지는 방종이며, 그것은 죄이다.

*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복음 시대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방종에서 나온 것이다(율법 폐기론자의 주장)

* 의식법이 폐기되었고, 모형과 의식들은 성령의 역사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 증

가된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2강)

2.하나님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은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1)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서는 벗어날 자유가 있다. 2)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3)그런 맹목적인 신종을 요구함은 양심의 자유와 또는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양심에 대해 적법한 권세를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심의 규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과장된 사람의 교훈들과 계명들은 양심의 속박을 받아야 할 하등의 권세도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된 율법의 내면적 활동에 의하여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

1)십계명에 의하여 선한 것을 알게 된다. 피아노 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2)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때와 장소 등 환경에 따라서 좋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금지한 피아노 치는 것이나 스트립쇼에서 피아노 치는 것은 잘못이다.

3)어떤 행위나 올바른 의도나 동기에서 행해야 한다. 명성이나 돈을 위해 피아노 치는 것은 피아노 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잘못일 수 있다.

4.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정권들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영적 자유는 서로 파괴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서로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1)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를 구실로 삼아 합법적인 권세나 또는 그것의 합법적인 실행(국가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을 반대하는 자는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도를 반대함이다.

2)그런 반대적인 선전이나 운동 같은 것은 자연 계시에도 위배되고, 이미 알려진 기독교의 신앙, 예배, 행위의 원리,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그릇된 선전이나 행동은 그 성격으로 보든지 그 행위로 보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문책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국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권세를 교회와 국가에 부여하셨다. 국가에는 죄를 벌할 수 있는 칼, 교회는 이단과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은 각기 자체의 영역 안에서 그 권세를 행할 권한이 있다.

*국가와 교회의 차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 조화하며 협력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둘 다 하나님의 기관이다. 양자는 다 죄를 제지하려는 기관으로서, 하나는 일반은총의 부문에 속하고, 다른 것은 특별은총의 부문에 속한다. 국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의 진로에 가로 막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교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국가와 교회가 다 이 세상의 끝 날에 가서는 기관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첫째, 국가가 이행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며 교회를 보호하며 국가의 임무실행에 관

계된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들을 친히 지키고 또 장려할 것이다. 특히 도덕이 타락한 때에는 정부는 그 국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둘째, 국가는 결코 여하한 종류이든지 국교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행동은 국가 자체의 정당한 영역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국가는 종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아니고 자기 영역 안에서 인류 사회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자연적 공동유익을 추진시키는데 있다. 국교를 둔다는 것은 교회의 자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판단력과 양심을 침범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는 신령한 일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일'들에 관하여 교회에 관계할 권리를 가졌다. 그것은 국가가 교회의 외부에 속한 일들 그 건물과 기타의 모든 재산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관계할 권리를 가졌다는 뜻이다. 이점에서 사회 안에 다른 분야의 기관들과 꼭 같은 법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양심의 자유,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모든 시민과 불신자에게도 보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종교적 자유와 꼭 같지는 않다. 칼빈주의자는, 국가가 정책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할 종교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 이 말은 칼빈주의자에게 있어서 종교적 신앙들이 가치에 있어서 마찬가지로라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

정부는 국가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자체의 양심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교회가 공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해야 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제31장 제 4항)에 잘 말하여졌으니, 곧 "공의회는 교회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주관하거나 판단할 것이 없느니라. 나라에 상관되는 정사는 간섭할 바가 아닌데 혹 특별한 일을 만나면 그 나라 집정자에게 겸손히 품하여 상의하든지 혹 나라의 집정자가 양심에 관계 한 일을 물으면 공의회에서 가히 충고할지니라"고 하였다.

교회가 국가에 끼칠 기독교적 감화운동은 다음 몇 가지 방안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1)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정치 상의 사리들을 무시하여 인생 생활의 모든 방면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명백히 가르칠 것이다.

2)기독교인인 과학자들과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적인 기반에 입각하여 국민 생활관계의 성경 진리들을 해명하여 전개시킬 것이다.

3)기독교 출판물과 기독교 방송과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에 대한 일반 민중의 호의를 얻도록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 교회들과 교회 협의회들이 일반 정치 영역 안에서 간접적으로 세력이나 영향력을 점차 더 많이 행사하려 한다.

*또 하나의 위협은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국가나 교회보다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의 권세와 책임을 주셨다. 국가는 시민의 의무를 이행할 정도의 충분한 교육을 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거할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적인 대답은 부모가 통제하는 기독교 학교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비기독교적인 학교가 아니다.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1. 자연 계시를 보아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선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서 모든 선을 행하시는 것으로 알려진다.

- 1) 인간은 전심전력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그를 사랑해야 되며, 그를 찬송해야 되며, 찾아야 되며, 믿어야 되며, 섬겨야 된다.
- 2)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이다.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기타 비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2.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 1) 천사들에게나 별세한 성도들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예배하지 말 것이다.
- 2)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이다.

- * 자연 계시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준다.
- * 그러나 그 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 * 예배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명령되고, 요구되었다는 뜻이다.
- *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다.
- *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아들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불로 소멸되었던 것이다.
- * 참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의하여 제한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3-5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 시편들을 노래하는 것, 성례의 집행, 맹세와 서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엄숙한 서원과 금식들을 제정 또는 규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 *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합당한 대상이 된다.
- *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신다.

* 로마교의 잘못된 가르침

- 1) 동정녀 마리아와 다른 성자들과 천사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 2) 곤경에 처한 때는 그들에게 간구하여 도움을 청해야 한다.
- 3)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게 중재할 수 있다.
- 4) 하나님께 성자들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구원을 구하고 또 도와 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
- 5)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그림들, 형상들과 유골들은 교회에서 보존하고 또 숭배되어야 한다고 한다.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의 비난을 면키 위하여, 라트리아, 즉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최고의 종교적 예배와, 둘리아 즉 등급에 따라 성자들과 천사들에게 정도에 맞게 드려져야 하는 열등한 종교적 예배를 구별한다(동정녀에게만 드리는 예배를 하이퍼 둘리아라 한다).

* 그들은 하나님, 동정녀, 성자들과 천사들에게 각각 드려야 하는 직접 예배와, 예배의 대상을 예배자에게 상기시켜 주는 그림이나 형상에 근거하여 드리는 간접 예배를 구별하고 있다.

* 성경의 교훈

- 1)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그만을 경배하라고 명하였다.
- 2) 성경은 사람들과 천사들에 대한 예배를 분명하게 금한다(골2:18 행10:25,26 행14:14-15).
- 3) 제2계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우리가 그를 숭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림들이나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한다.
- 4) 성자들이 하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적 속성이 없다.
- 5)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시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중보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절대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3.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려면, 그것이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깨닫는 마음과 경외와 겸손과 간절성과 신앙과 사랑과 인내로 실행되어야 하고,(대표로 기도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

- * 기도와 감사가 참된 예배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 * 기도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져야 한다.
- * 기도를 합당하게 드리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의 규칙이 필요하다.
- * 기도는 일반적인 언어로 드려야 한다.

*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를 위한 그의 대언이 모든 참된 기도의 근거가 된다.

- * 참된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 * 어떻게 마음속에서 우려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성령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참된 기도의 기본 형태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 기도서에 의한(고정된 형식의)기도들은 그릇되다. 왜냐하면 성령의 직접적인 도우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 특정한 사람들과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다.

* 기도는 성경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

4. 기도자는,

1) 합당한 것을 기구해야 되며,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장차 나서 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 2)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 것이며,
- 3)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다

제21장 예배와 안식일(2)

5.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이 실행된다.

- 1)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해야 되며
- 2)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되며
- 3)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달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 4) 심령에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해야 되고
- 5)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되며,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

위의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행될 일들이다. 이 밖에 특수한 경우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감사 예배 등이 있다. 이런 행사들은 때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 * 참된 예배에서 서열상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듣는 것임에 틀림없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 * 성례를 행하라.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와는 달리, 죄인들을 회개시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수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힘 있게 해 주고 확실케 하는 수단인 것이다.
- * 참된 예배의 다른 요소는 마음에 은혜로 시편들을 노래하는 것이다. 현대의 찬송가를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시편들만 인정하고 있다.
- * 회막과 성전이 상징적인 공교한 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것을 내세워 벽이나 유리창 등에 그리스도의 화상을 그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가건적인 것들로 되어 있는 모든 의식 체계가 폐기되었고, 둘째 그 의식 체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적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 참된 예배의 임시적 요소들이 언급되었다. 금식의 경우, 로마교는 어떤 특정한 날들과 시기들에 금식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계적인 규정에 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금식이 내면적인 신령한 욕구에 의한 것일 때에는(죄에 대한 탄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 개인적인 긴박한 위기 등) 참된 예배의 요소가 된다.

6. 복음 시대에 기도나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특정 장소에서 혹은 그곳을 향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다. 이런 예배는 가정적으로 날마다 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다.

특별히 공중 예배의 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공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주의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

* 예배의 격식에는 시간, 장소,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 회수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선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규정하지 않고, 교회의 결정 사항으로 남겨 두셨다. 그러나 예배의 요소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규정하셨다.

7.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바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영구한 명령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의 인류로 하여금 이레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레 중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레 주 첫날로 바뀌었다.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 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 *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
- *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순서에 있어서 일곱째 날이었다.
- * 부활 이후 안식일은 첫째 날이었다.

*** 안식일에 대한 반대**

1) 안식일이 유대적이고, 구약의 의식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 안식일은 의식법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지킬 의무가 있다. 4계명은 도덕법이지 의식법이 아니다.

2) 그리스도가 안식일은 반대하셨다 : 바리새인은 주께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안식일에 의무를 다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안식일의 참뜻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에서 위치를 정해 주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히셨다. 경건을 도모하는 일(목사가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 부득이한 일(지체되면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 수로에 빠진 소를 건지는 일, 불 끄는 일을 돕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병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 등이다.

*** 안식교의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된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반론**

1) 일곱째 날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한다. 시간의 비율상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명한다. 첫째 날도 시간의 비율에서 일곱째 날이다.

2) 사도 시대에 교회가 주의 첫째 날을 일곱째 부분, 즉 안식일로 지켰다.

3) 창조의 안식에서, 구속에 대한 안식의 의미가 발전되었다.

8.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니,

1)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2)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3) 그 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 안식의 기초적인 의미는 중지이다. 잠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업이든 오락이든 간에 옛세 동안 우리가 몰두해 온 모든 일들을 중지하는 것이다.

* 부득이한 일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라. 개인적인 불편이나 어려움이 아니다.

제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1.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 맹세자는 정당한 경우에 하나님의 증거를 기원하면서 확실성을 보장한다. 즉,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그 자신의 진실성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 받는다는 것이다.

2.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은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허망하게(혹은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맹세함도 죄악이고, 2) 어떤 다른 것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도 죄악이다. 그런 죄 되는 행동은 두려움으로 기피해야 된다.

중대한 일에 있어서 맹세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때에 이행되어야 한다.

3.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심해야 된다.

- 1) 맹세는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
- 2)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의 그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 것
- 3) 자기 힘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무엇에 대하여서나 맹세하지 말 것
- 4)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맹세가 합법적인 권위로부터 요구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함이 죄라는 것이다.

4. 맹세는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된다.

- 1) 두 가지(혹은 그 이상)를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이나 또는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 2) 맹세를 잘못하고 부득이하여 이행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나 죄 아닌 것을 맹세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 3)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이라도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

5. 서원함은 성질상 맹세함과 같다. 그러므로 그것도 역시 종교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며, 또한 그와 같이 신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상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열납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 1) 자원하여 믿음과 책임감으로 해야 된다.
- 2) 하나님이 베푸신 공물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 3) 서원하는 자는 그 서원에 따르는 필요한 의무 수행과 및 그와 관련된 일들에 더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7. 사람이 서원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 2)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에 방해되는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 3) 서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하는 것 등이다.

제23장 국가의 위정자

베드로전서 2:13-14

1. 전 세계의 대 주재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들 위에 각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자기 관하에서 봉사케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한 것인데,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권장하고 악행 하는 자들을 벌함이다. 하나님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2. 기독 신자들이 각기 나라의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에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들이 할 일인 이러하니, 1) 각기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참 종교와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2)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약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쟁도 하게 되는 것이 합법적이다.

3. 위정자는 정규 예배시의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함과 천국의 열쇠(교회 치리권)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 봉사의 성격은,

- 1) 교회 안에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 2)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협조해야 하며
- 3) 모든 신성 모독의 행위와 이단이 억압되고, 모든 부패와 예배 방해가 저지되고, 또 개혁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 4)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적당히 행해지고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 5) 위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는 또한 그 회의의 자기 자신도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4. 모든 사람들이 위정자들이나 정부를 위하여 마땅히 할 일들을 다음과 같다.

- 1)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 그들의 인격을 존중함, 정부에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함,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되 양심적으로 할 것 등이다.
- 2) 위정자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은 위정자의 법적 권위를 무시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무 수행에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 3) 교황은 세속적 사항들에 있어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그 백성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들에게 이단 혹은 기타 과오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도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아무런 권리도 없다.

제24장 결혼과 이혼

1.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여자를 두는 것이 불법한 일이고, 한 여자로서 한 명 이상의 남자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2. 결혼의 목적은, 1)부부 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이고, 2)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교회로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3)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결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에는 다음 몇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특별히

1) 개혁 신앙의 소유자는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기타 우상 교도와 결혼할 수 없다.

2) 경건한 자로서는, 극히 두드러지게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이든지, 멸망받을 만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로 더불어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잘못된 결혼은 서로 맞지 않는 처지에서 한 멩에를 메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4. 혈연관계가 서로 가까운 남녀는 결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런 결혼이 성경에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으로도 합법화되지 못하며, 쌍방의 동의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그 배우자 측의 어떤 근친과도 결혼할 수 없다.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약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간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이혼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범죄한 측은 무흠한 측에게 죽은 자와 같이 취급된다.

6. 인간의 부패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이혼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의 정당한 이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와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릴 경우이다. 이런 일은 교회나 행정부가 어떻게 화해시켜 줄 도리가 없는 정도의 것이다.

이혼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자유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법의 질서와 절차를 경유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제25장 교회

1.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택한 백성의 전체 수효이고, 2)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에 하나로 모인다. 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일 것이다. 3)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다.

2.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1)신약시대(복음시대)의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2)전 세계에서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3)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보통으로는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

3. **이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의한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주셨다.** 그것은, 1)현세에서부터 세상 끝 날까지 성도들을 완성하시려는 목적인데, 2)그의 약속대로 그와 그 성령의 현림에 의하여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효과적으로 작용케 하신다.

4. **이 보편적 교회의 식별되는 정도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개 교회의 상황으로 알려진다. 개 교회에서 1)복음 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한가, 혹은 덜 순수한가? 2)하나님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의 시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된다.

5.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불결함과 오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였다. 그러나 땅 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6.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제26장 성도들의 교통

1.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은혜와 그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상호 간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1)각기 받은 직능과 은사의 유익을 통용하게 되었으니 만큼, 2)그들의 처지에서는 각기 받은 은사대로 공사 간에 서로 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 피차 영육 간 유익을 받도록 하는데 협력함이 된다.

- *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적 연합이다.
- * 구속언약(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된다.
- *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은혜언약이다.
- * 영적인 연합이다.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한다.
- *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이다.
- * 신비한 연합 :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집(건축)
-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수난, 죽음,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 *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범신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 * 지정의에서의 일치(리츨의 주장)를 말하는 것 아니다.
- *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이다.
- * 성도의 연합은 개인의 인격과 차이를 소멸시키는 것 아니라,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 * 직능과 은사는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함이다.
- * 몸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다.

2. 성도들은 그 신앙의 공동 고백에 의하여 상호 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 거룩한 교제는, 1)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사와 피차 유익이 되는 영적 행사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2)피차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원조에 의한 교통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뻐 주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 * 신앙 고백으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한다.
- * 예배와 영적 행사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 물질의 원조도 되어야 한다.
- * 성도의 연합을 확대해야 한다.

3.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실체에 동참한다는 의미인가? 혹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등이 된다는 의미인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하여는 모두 부정적인 답을 해야 한다. 그 어느 것에 대해서든지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면 그것은 불경이요, 또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각자가 그 받은 은사나 소유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빼앗는다는 것도 아니다.

제27장 성례

1.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인치는 표(signs)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1)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혜택을 표시하여 그 분 안에서 또는 그분으로 더불어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며, 2)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3)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 성례란 무엇인가? 은혜 언약에 대하여 인치는 표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과 은혜 언약을 맺으면서 제정하셨다.

* 성례는 말씀에 의존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인가?

* 그리스도가 교회에 제정하신 객관적인 통로인 말씀과 성례만이다.

* 아닌 것 : 교회, 믿음, 회개, 기도 등등

* 은혜의 방편에 대한 역사적 개요

1) 로마천주교 : 성례는 진정한 은혜의 방편으로 간주하고 말씀은 예비적인 방편으로 본다. 발전된 교회 조직체가 성례보다 더 주요한 은혜의 방편이다.

* 화체설(성례의 본질이 물질적이다) : 성례를 통해서 외부에서 은혜가 주입된다. 절대적으로 은혜는 성례에 의존한다. 세례는 중생시키고, 성찬은 신자의 영적 생활을 끌어올린다. 교회와 성례를 떠나서 구원없다.

2) 루터파 : 루터는 성례보다 말씀을 더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여긴다.

* 공재설(편재설/성례의 본질이 장소적이다) :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들 안에, 함께, 아래 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 루터는 재세례파의 주관성에 반대하면서 성례의 객관성을 강조하였다. 천주교를 벗어나지 못했다.

3) 신비주의자 : 제세례파를 비롯한 신비주의자들은 사실상 은혜의 방편을 부인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례 같은 방편에 제한받지 않는다.

* 성령의 내적 조명이 직접 마음속에 역사한다.

4) 합리주의(성례의 본질이 도덕적이다) : 소지니주의자들은 제세례파와 정반대로 나아갔다. 성례는 도덕적인 효력을 지닌다. 은혜의 방편은 도덕적인 수단이고 성령의 신비한 연합으로 보지 않는다. 성례는 기념에 지나지 않는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18세기 합리주의도 여기에 동조한다.

5) 개혁주의(성례의 본질이 영적이고 도덕적이다) :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에 얽매이지 않으나 통상적인 수단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 합리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덕적 효력이라고 주장한다.

* 로마천주교와 루터파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방편 그 자체에 있다고 한다.

* 신비주의(주관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의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한다.

*** 말씀과 성례의 관계**

1) 로마천주교 : 성례가 죄인을 구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말씀이 불필요하다.

2) 개혁신교회 :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례가 말씀에 첨가된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귀에 전달된 진리는 성례를 통하여 눈에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말씀은 성례 없이 존재할 수 있으나 성례는 말씀 없이 완전하지 못하다.

말씀	성례
절대 필요	2차적
믿음을 갖게 하고 강하게 함	믿음을 강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 선포	단지 신자만을 위하여

*** 성례의 구성**

1) 외적이고 가견적인 표 : 물(세례)이나 떡과 포도주(성찬)

2) 내면적인 영적 은혜 :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 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과 연합한다. 따라서 성례는 외적인 표와 내적 의미가 함께 하도록 믿음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다.

*** 성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 1) 은혜 언약의 혜택
- 2) 그리스도와 관계
- 3)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
- 4) 하나님의 일에 대한 다짐

2. 성례식에 있어서 표호(sign)와 실제(the thing signified/표호가 상징하는 실물과 그 효과) 사이에는 영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 관계는 그 둘 사이의 신비적 연합이다. 그러므로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3. 성례식이 올바르게 실시되는 데서 나타나는 은혜는 어떤 원인에서 임하는가? 성례식 자체에 고유된 내재적인 능력도 아니고, 집례자의 경건 혹은 그의 의도 때문에도 아니다.

거기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원인은, 첫째, 성령의 역사 때문이고, 둘째, 성례식 설립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즉, 성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주님이 약속 때문이다.

4.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례식은 두 가지 뿐이다. 그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가지 중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목사에게 국한된다.

* 구약에 할례와 유월절, 신약에 세례와 성찬이다.

* 할례와 세례 : 한번만 행한다. 하나님과 연합의 시작(죄 씻음과 의롭다 함)을 나타낸다. 받는 자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 유월절과 성찬 : 반복적으로 행한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합(말씀의 양식, 성장, 성화 등)을 나타낸다.

* 집례자는 목사에게 국한된다 : 성례가 자동식 은혜의 용기와 운반 기계가 아니고, 회심의 도구도 아니다. 성례가 없다고 구원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로마천주교

1) 일곱가지 성례를 말한다. 견진, 고해, 서품, 혼례, 종부성사를 추가된다.

2) 집례자도 비상적일 때 산파도 가능하다.

제28장 세례

1. 세례는 신약의 성례식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 시행의 의미는, 신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그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으로서의 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의미이다. 그의 중생과 죄 씻음 받음을 의미하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대로 그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되, 세상 끝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 세례

1) 이집트, 페르시아, 힌두교도들에게 바닷물에 몸을 담그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종교적 정결 의식이 있었다.

2) 유대인 :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편입될 때 할례를 받았고 후에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윤리적 의미가 강조된다.

3) 요한의 세례 : 요한의 세례는 율법에 부합한 회개를 강조하고, 유대인만 위한 것이고,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부한 영적 은사들이 동반되지 않았다.

*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마28: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복음의 구두적 내용(부르심,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으로 다루어진 은혜)을 비구두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 은혜의 교리를 수용하는 외양을 나타낸 것이다.

* 세례의 의미

1) 유형교회 가입의 방편

2)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

3)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 중생과 죄 씻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4) 새로운 순종의 의무를 부여 받았다.

2. 세례에 사용되는 외부적 요소는 물이다. 신자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면, 그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복음 사역자(목사)에게 국한된다.

* 외부적 요소는 물이다.

*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

* 집례자는 목사이다.

* 천주교 : 세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생각한다. 아이를 위하여 위급할 때에는 산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3. 세례를 베풀는데 있어서 사람을 물속에 잠글 필요는 없다. 세례 베풀는 바른 방법은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든지 혹은 머리 위를 물로 적심으로 족하다.

*** 세례의 양식**

1) 침례교 : 침례만이 유일한 세례 양식이다. 세례의 기본 이념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이다. 세례를 은혜의 상태로 본다. 재침례가 가능하다.

2) 개혁주의 : 침례뿐 아니라,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도 합당한 양식이다(레14:7/민8:7/히9:19-22). 세례는 상태가 아닌 양식이다. 재침례는 없다.

* 밧티조가 침례만 의미하지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5).

*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삼천 명을 침례 했을까?

* 빌립보 간수는 강으로 가서 침례 받았을까?

*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로 내려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것이 침례인가?

4.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에게 세례를 베풀되, 영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 부모들 중에 둘이 다 믿는지 혹은 그 중 한 사람만이라도 신자일 경우에만 그 일은 성립된다.

1) 성인 세례 : 세례를 받을 때 공적인 신앙고백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유형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2) 유아세례에 대한 반대(침례교)

* 어린 아이는 세례를 경험하거나 행할 능력이 없다.

* 성경에 유아 세례의 증거가 없다.

3) 유아세례의 근거와 효력(개혁주의)

* 구약 할례에 어린아이도 참여했다. 언약신학에 근거하면 유아세례를 당연히 베풀다(롬4:16-18/ 롬 4:13-18/갈3:15-18). 유아세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이 들어온다.

* 중생한 것을 근거로 유아세례를 한다는 견해와 언약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유아세례를 준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가 타당하다.

* 효력의 발생 : 당장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언약을 잘 이해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언약의 파기자가 되면 효력이 없다.

*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은혜받는다.

5. 세례를 멀리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세례가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세례 받는 일 없이도 거듭나서 구원받는 일이 있고, 세례 받은 사람이고 하여 그들이 다 거듭났다고 할 수도 없다.

* 성례의 정당한 집행과 구원하는 은혜의 사역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

6. 세례의 효과는 세례를 시행하는 그 시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면 그 약속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을 자에게 임하며, 성인에게나 영아에게나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주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목적대로 행하신다.

1) 세례,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고 세례의 효력이 나타남

2) 유효한 부르심, 세례, 그리고 세례의 효력 나타남.

7. 세례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자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든지 단 한번만 받도록 한다.

제29장 성찬

1. 주 예수께서 그의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성례를 제정하였으니, 곧 주님의 성찬이다. 그것은 세상 끝 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 지켜야 할 말씀이다. 성찬의 의미는, 1)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케 함이고, 2)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요, 3)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는 것이고, 4)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헌신한다는 것이고, 5)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보증이고, 6)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이다.

* 유월절 식사 : 피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먹되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

* 이스라엘에서 성찬 : 희생 제사에는 제물을 먹는 예식이 뒤따랐다. 희생 제물 가운데 내정에 붙은 기름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은 제사장들에게, 우편 뒷다리는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희생을 드리는 자와 그의 친구들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했다.

* 성찬의 의미

- 1)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케 함
- 2)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의 보증
- 3)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양식의 공급
- 4) 성도의 마땅한 의무에 헌신함
- 5) 신자들의 그리스도와 교통,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교통

2. 성찬 거행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부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다시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도 아니다.

성찬 거행의 올바른 의미는, 1)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 한번만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신 그 사건에 대한 기념행사에 불과하며, 2)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자들의 영적 찬송에 불과한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미사로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찬 거행시마다 그리스도를 실제적 속죄 제물로 거듭거듭 바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단 한번만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으로 충족했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의 절대적 완전성에 대하여 가장 해로운 교리이다.

* 성찬은 희생 제사가 아니다.

* 개혁주의 :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속량하기에 충분하다.

* 천주교의 미사 :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동일한 희생 제사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과거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죽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죄인 죄를 범하는 횡수만큼 자주 죽으

셔야 한다. 계속 반복하는 희생 제사 없이는 구원이 없다.

3. 성찬을 거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자시하신 것은 다음과 같다. 1) 그가 성찬을 제정하시던 때에 주신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케 하심, 2) 떡과 포도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그것들을 성별하게 하심, 3)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되 그들 자신도 참여케 하심, 4)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4. 천주교의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성격과 위배된다. 1) 사적인 미사, 곧 신부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혼자가 받는 것, 2) 일반 신자들에게는 잔을 분배하지 않는 것, 3) 떡과 포도주를 경배하거나 혹은 높이 쳐들어 올리거나 존송하는 뜻으로 들고 돌아다니거나 또한 참석하지 못한 자에게도 주려고 떡과 포도주를 보관해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풍습은 성찬의 본질에도 반대되고, 그리스도의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5. 이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야 된다. 그러나 다만 비의적인 대리적 표현으로 관련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요소들이 실질과 성격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이다.

6. 신부의 기도나 감사로 인해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체설은, 1) 성경과 반대될 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 것이며, 2) 성찬의 성격을 뒤집어엎는 교리이고, 3) 많은 미신과 우상주의의 원인이 되어 왔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1) 로마교회(화체설) : 이것은 내 몸이라는 예전문을 낭독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2) 루터파(공재설) :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에, 아래,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장소적으로 임재한다.

3) 썬빙글리 :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이다.

4) 소지니주의자, 알미니안주의 : 기념행사이고 신앙고백 행위이다. 도덕적 증진을 위한 방편이다.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통속적인 견해이다.

5) 개혁주의 : 육체적으로(화체설), 장소적으로 임재하지 않지만, 몸과 피를 포함하는 전인으로서 임재하신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을 강조한다.

7.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신자들은, 1)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들(떡과 포도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및 그 죽으심의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먹는 것처럼) 받는다. 이와 같은 섭취 행위가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2) 그 섭취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그 요소들(떡과 포도주)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3)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섭취

자들의 신앙에 영적으로 현림한다.

8.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들이 물질적인 요소들(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거기에 상징된 실체(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성찬 참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며,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 데 적합하지 못하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상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될 수도 없다.

제30장 교회의 권징(1)

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 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 * 교회의 정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 * 사도들이 교회의 규범적 헌법을 구현하였고,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
- * 장로나 감독들이 이 헌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관장한다.

* 감독정치 :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집중된다. 로마교회에서 가장 발달되었다. 감리교, 동방정교회, 성공회에도 찾아볼 수 있다.

* 회중정치 : 회중이 정치의 자치권을 갖는다. 한명의 치리 장로가 있다. 개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교회에 대해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

* 장로정치 : 장로나 감독들의 집단체에 의하여 교회 정치가 움직인다. 성경적이다. 장로제가 가장 순수하다.

(교회 권세의 원천)

*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권세 혹은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는 유기적인 면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고 왕이다. 왕의 자격으로 교회를 권세와 권위로써 옷 입히셨다.

* 교회의 직원은 회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직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권세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정부 당국의 권세를 받은 것 아니다. 교인의 대표라 할지라도 교인들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 아니다. 대표라는 말은 그들의 권세의 원천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는 방법을 지시하는 말이다.

교회 권세의 유형들

1. 교리권(가르치는 권세)

2. 사역권

1) 신유의 은사 : 신유의 은사가 모든 시대에 계속되리라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특별계시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적들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었다.

2) 일반적인 자선 사역 : 초대교회는 재물을 서로 나눔으로 아무도 생활필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을 강조한다.

3. 치리권(질서유지권과 순결유지권)

1) 질서유지권

* 교회법 또는 교회 헌장을 작성할 권세 : 이 같은 법규는 교회의 외적인 정치를 형태화 할 때, 교회 직분을 맡을 사람의 조건, 공예배의 형식, 권징을 규정할 때 등이다.

2) 순결유지권

* 심사 후 승인된 자를 받아들이고, 진리에서 떠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제외시킴으로 교회의 성결을 보호하는 권세이다. 권징에서 행사된다.

제30장 교회의 권징(2)

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 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2.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치리권)가 맡겨졌다.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범죄자를 맏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으며, 2)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계 실시에 의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 줄 수도 있다.

* 열쇠의 권세 :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마16:19)

*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열쇠 관리권을 주셨다.

* 로마교회의 잘못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과(인격), 그의 후계자에게 열쇠를 양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며, 교회의 모든 제직들의 의하여 관리된다.

* 개신교의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권세의 관리자들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 베드로라는 인물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옮겨졌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항구적이고 유일한 최고의 권세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징이다.

3. 권징의 필요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범죄한 형제를 교정시켜 회복하기 위함, 2)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3)은 교회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함, 4)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함, 5)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 안의 패역한 범죄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의 영예를 더럽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교회 전체에 임할까 우려된다.

4.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행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그 처사를 조절해야 되는데, 경책, 일시적 수찬 정지, 또는 출교 등으로 처리한다.

* 권징에 대한 반대

- 1)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게 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기도한다.
- 2)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삼가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 3) 권징을 반대함은 내어 쫓는 것(출교)은 반대한다.

* 당회의 직무(헌법 p.165)

* 권징 하는 일 :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별한다.

제31장 공의회와 협의회

1. 교회의 효율적인 치리와 건덕을 위하여 공의회와 협의회가 필요하다.

* 개교회(조직교회)

* 상회 : 노회, 대회, 총회

2. 국가의 위정자가 종교적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혹은 충고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목사들의 공의회와 기타 적합한 인물들을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정자가 교회의 공적 원수인 경우에는 목사들 측에서 그 직무상 권리에 의하여 별도로 모여 의논할 수 있다.

* 교회 정치는 국가의 정치와 구별된다.

* 교회만 공의회와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간여할 수 없다.

* 제30장(교회의 권징) 1항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 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 제23장(국가의 위정자) 3항

위정자는 정규 예배시의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함과 천국의 열쇠(교회 치리권)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 봉사의 성격은,

- 1) 교회 안에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 2)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협조해야 하며
- 3) 모든 신성 모독의 행위와 이단이 억압되고, 모든 부패와 예배 방해가 저지되고, 또 개혁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 4)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적당히 행해지고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 5) 위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는 또한 그 회의의 자기 자신도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 니케아 회의(주후 325년)는 세상 통치자에 의하여 소집된 최초의 회의였다. 콘스탄틴 황제는 아리우스 논쟁의 두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 했다. 그래서 황제 자신이 의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세속 권세가 교회 정치 영역에 침범하는 선례를 남겼다.

* 역사적 배경 : 로마카톨릭 교회가 세속의 문제들에 있어서 모두 우위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 호의적인 세속 통치자들은 투쟁하는 개혁주의 교회들을 여러 차례 보호해 주었던 사실이 있었다.

3. **교회의 사역 책임은 공의회와 협의회에 속한다.** 이 모임에서 하는 일은, 1)신앙 문제나 양심 문제로 인한 논쟁 해결, 2)공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규칙과 지도 원리 결정, 3)치리회의 실책에 대한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권위 있게 해결하여 주는 것 등이다.

위의 해결과 작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한, 당사자들은 그 작정에 순종해야 된다. 그들이 순종할 이유 또한 한 가지는, 교회의 공의회도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권위를 가졌다는 점이다.

- * 예루살렘 공의회(행15:1-21) : 규례들이 작성되었고 그 규례들을 지키게 했다.
- *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 *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 *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 * 성경에 첨가해서 새로운 법칙을 입법화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예배의 내용을 제정할 수 없고 예배의 순서만 정할 수 있다.
- * 순종해야 할 이유 : 성경의 권위와 공의회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4. **사도시대 이후 모든 공의회와 협의회는 총회 차원에서 또는 개별적 회의에서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상 많은 회의가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공의회와 협의회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법칙은 될 수 없고 다만 도움이 될 뿐이다.

- *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이나 지시는 불순종한다. 공의회 자체 권위로 명령할 수 없다.

5. **(교회의)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적인 사항 이외의 다른 일은 취급하지도 말고 결정해도 안 된다.** 그리고 국가에 관한 정치 문제에 간여하지 말 것이며, 다만 비상한 경우에는 위정자에게 겸손히 청원할 수 있다. 혹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거기에 응하고, 충고할 수도 있다.

- * 교회적인 사항만 취급한다.
- * 국가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다.
- * 비상한 경우에 겸손히 청원할 수 있고, 위정자의 요구에 충고할 수 있다.
- *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 그들이 변할 때 사회적 정치적으로 누룩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 * NCC가 정치적인 강령들과 사회적인 계획안들을 자주 주창했다. 이들 주장의 일부가 옳아도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 1) 미국은 외교적으로 중공을 승인할 것
- 2) 중공을 유엔 기구에 가입시킬 것
- 3)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 일반적인 적대 감정을 갖는 것을 피할 것
- 4) 국수주의 대신 국제주의를 취할 것

- 5) 세계적인 무장 해제를 촉구할 것
- 6) 유엔의 재가와 통제 하에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
- 7) 징병제도를 폐지할 것
- 8) 항구적인 유엔 경찰을 창설할 것

제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1)

1.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1) 의인들의 영혼은 별세하는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2) 악인들의 영혼은 별세 후에 지옥에 던지우고 그 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데 머물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몸에서 떠난 영혼들의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위의 두 가지 밖에 말하지 않는다.

- 1) 모든 사람의 육신은 다 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썩는다.
- 2) 그 때에 모든 사람의 영혼은 중간기 상태에 들어가고
- 3) 의인과 악인의 중간기는 각각 다르고
- 4) 로마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허구이다.

1. 육체의 죽음

1) 육체의 죽음은 멸절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로 인한 육체적 생명의 끝이다.

2)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저주이다.

3) 신자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신자에게 죽음은 단순한 별이 아닌 성화의 한 과정으로 중요하다. 죽음으로 죄를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

2. 중간기 상태

1) 음부(sheol-hades)에 대한 현대적 이해 :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어서 가는 곳이다. 구약에서는 스올로 신약에서는 음부(hades)로 표현한다. 음부는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살던 희미한 기억을 가지며,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잃는다고 한다.

그러나 눅16:23절에 음부는 적극적인 고통을 받는 곳이다. 성경은 음부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때로는 무덤으로(창42:38;시16:10), 때로는 죽음의 상태로(삼상2:6;시89:48), 때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신32:22;시9:17)로 표현한다.

2) 연옥, 선조림보, 유아림보 : 로마교에 의하면 완전한 영혼은 죽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나 대부분의 완전하지 못한 신자들은 소위 연옥이라는 정화하는 곳에 들어간다. 연옥에 거하는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는데, 후손들이나 친구들에 의해 줄어들 수 있다. 선조 림보는 구약의 성도들, 유아 림보는 세례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적극적인 형벌은 면제되고 천국의 축복도 없는 곳이다.

3) 영혼의 수면 : 죽으면 무의식의 수면에 들어간다. 죽음을 잠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을 근거하여 죽음을 무의식의 잠으로 이해한다(마8:24;행7:60). 그러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 것은 비유일 뿐이다. 신자의 영혼은 의식 활동을 한다(눅16:19-31;고후5:8;빌1:23).

4) 멸절설(조건부 영생설) :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음 후에 멸절된다. 다만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불멸의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요10:27; 롬2:7).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의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 한다(눅12:47-48; 롬2:12)

제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2)

2.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를 받을 뿐이며, 모든 죽었던 신자들은 여전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다만 그 체질이 다를 뿐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몸이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

1)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마24:14;마13:10;롬11:25)

2) 온 이스라엘의 구원(롬11:25-29) :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

*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3) 배교와 대환란(마24:12;살후2:3;딤후3:1-7;4:3)

* 마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 살후2:3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고.”

* 딤후3:1-7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4) 적그리스도의 출현(살후2:3-4)

5) 표적과 기사(마24:29-30;막13:24-25;눅21:25-26) : 지진 전쟁 기근 등

2. 그리스도의 재림

1) 재림의 시기 : 재림은 임박했고 징조는 있으나 그 시와 때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마24:36).

2) 재림의 방식 : 육신적인 재림(마24:30; 26:64; 행1:11), 갑작스런 재림(마24:37-44; 25:1-12; 살전5:2), 영광과 승리의 재림(마24:30;살후1:7;살전4:16;살전3:13;살후1:10)

3) 재림의 목적 : 부활과 최후 심판을 위해 재림하신다(요5:25-29;행17:31;롬2:3-16;빌3:20-21).

3. 천년왕국

1) **후천년설(천년후 재림설)** :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 중에 배교와 환난이 있는 후에 재림한다는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전천년설(천년전 재림설)** :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다윗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천년을 왕노릇한다. 계20:1-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고 하나, 성경은 영적이고 우주적인 왕국은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마11:12;12:28;눅17:21;딤후4:18;벧후1:11).

3)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 7년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 휴거와 재림을 별개로 보나(마24:36-42), 성경은 동시 사건이라고 한다(살전4:15-18;고전15:51-52)).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한걸음 더 나가면 시한부

종말론이 될 수 있다.

4) 무천년설 : 특별한 천년왕국은 없다. 재림과 초림 사이의 기간이 천년이다. 영적인 해석으로 치우치기 쉽다.

제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3)

2.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를 받을 뿐이며, 모든 죽었던 신자들은 여전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다만 그 체질이 다를 뿐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몸이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3. 마지막 심판 날에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 재림의 목적

- 1) 부활
- 2) 심판
- 3) 새하늘과 새 땅(최후의 상태)

* 부활의 시기

- 부활과 세상의 끝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치한다. 부활하고 즉시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요5:27-29; 고전 15:23; 빌3:20; 계20:11-15). 천천년설자들은 천년을 사이에 두고 의로운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악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나 부활은 동시적이다(단12:2; 요5:28; 행24:15).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한 자의 부활은 동시적이다(요6:39; 11:24).

* 부활의 본질

- 1)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 2) 현재의 몸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초월성)

* 의인의 부활(구원받은 자의 부활)

1) 육체의 부활이 있다. 무덤에 썩은 몸과 부활의 몸은 일종의 연속성이 있다. 태아와 장성한 사람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죽는 몸과 다시 사는 몸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다.

2) 부활의 몸은 이승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성령의 지배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받음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3) 이는 무에서 창조되는 새 몸이 아니라, 새 몸으로 변화되는 옛 몸이다. 그것이 옛 몸과 연속성 있게 될 것은 마치 신자의 영혼이 그가 중생하기 이전에 가졌던 영혼과 연속성이 있는 것과도 같다. 사람이 잡 동사니 금속을 모아 그것을 녹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 악인의 부활(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

1) 그들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과 동시에 있을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 2) 그들의 경우 또한 무덤 속에 묻혔던 바로 그 몸의 부활일 것이다.

3)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몸에도 근원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치욕, 경멸, 부끄러움,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에 알맞은 그러한 것들일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우리라.

제33장 마지막 심판

1.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사상과 말과 행위를 고백하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 간에 보응을 받게 된다.

1)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한다(시96:13;전3:17;마25:31-46;고후5:10;딤후4:1;계20:11-14).

* 마태복음25:32-33절 : 모든 민족을 구 앞에 모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 고후5:10 :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 딤후4:1 :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심판관 :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공로로 심판관이 되신다(요5:27;행10:42;빌2:10). 천사가 심판을 도울 것이며(마13:41), 성도들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전6:2;계20:4).

* 빌립보2:10 :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3) 심판받을 자 : 모든 개개인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전12:14;마12:36;롬14:10;고후5:10;계20:12). 악마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마8:29;고전6:3;벧후2:4). 의로운 자도 심판을 받는다(마13:30;40-43;고후5:10).

4) 심판의 시기 : 마지막 심판은 세상 끝날, 죽은 자가 부활한 즉시에 있다(계20:12-13;요5:28-29). 심판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 천천년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년이나 혹은 하루 24시간은 아니다.

* 요한계시록20:13 :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5) 심판의 기준 : 이방인은 자연법으로, 유대인은 구약의 계시로,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의 계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롬2:12).

* 로마서2:12 :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2. 하나님께서 심판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악하고 거역하는 불택자들을 영원히 정죄하시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 때의 의로운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존전에서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던져져 거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 최후의 상태

1) 악한 자들은 지옥에(hell) 들어간다.

* 성경은 지옥을 단순한 상태가 아닌 장소, 불타는 곳이나 감옥으로 말한다(마13:42; 계20:14; 벧전3:19).

*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끝없는 괴로움과 양심의 찢림이나 번뇌와 낙심 등의 영육이 함께 적극적인 고통을 겪는다(마8:12; 막9:4 ;눅16:23; 계14:10). 형벌에도 차등이 있으며(마11:22; 눅12:47-48; 20:47), 그 형벌은 영원하다(눅16:26; 막9:23).

2) 믿은 자들은 현재의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현재의 세상이 갱신되는 것이다(시102:26-27; 히12:26-28).

* 하늘은(Heaven)신자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다. 하늘은 상태가 아닌 처소이다(마22:12-13; 25:10-12). 신자들은 하늘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상속할 것이다(계21:1-3).

* 의로운 자들이 받을 상급은 영생이다. 영생은 끝없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불안전이나 결함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는 삶을 말한다. 하늘의 즐거움도 차등하다(단12:3;고후9:6).

3.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있을 심판 날에 대하여 사람들의 확실히 설득되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은 첫째, 모든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저지시키려는 것이고, 둘째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당한 환난에서 더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날이 꼭 어느 날인지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모르는 것을 원하신다. 그 목적은 첫째,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 평안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둘째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려는 것이고, 셋째 언제든지 신앙을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다.